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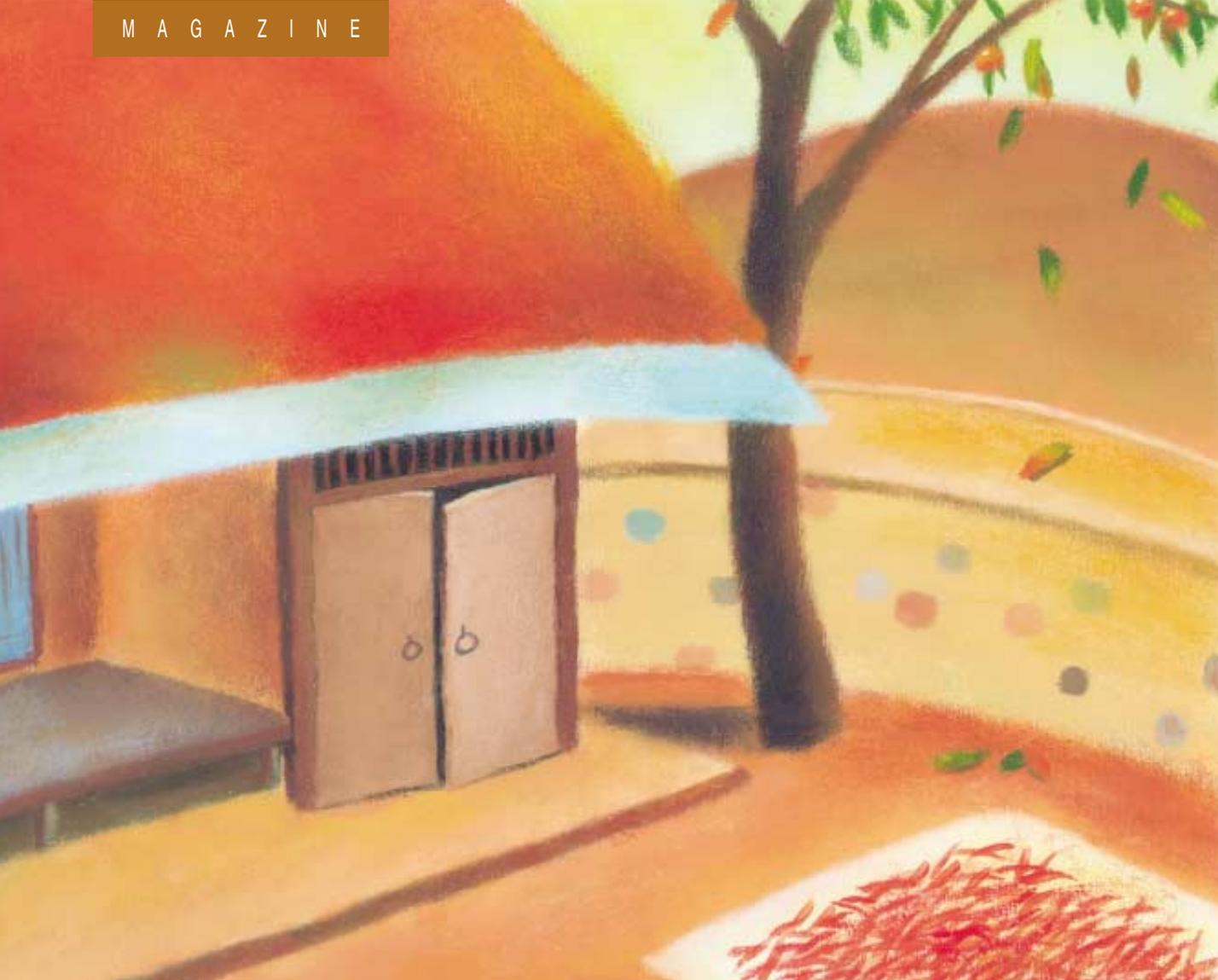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9월호(통권155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1 **9**

월간

우리 문화

2001 · 9

2001년 9월호(제15권 9호 통권 155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인쇄소 / 크리홍(주)
 발행일 / 2001년 9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秋色이 짙어가는 9월엔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띄어보는데 어떻까요. 스르르 헛간문이 열리면, 마당으로 걸어 나 오실것 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마당에선 손자녀석 좋아할만큼 감이 익어 가고 서울 보낼 고추는 더욱 낮을 붉히고...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회의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9 ◆ 고향이 좋다



3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



17 ◆ 특집-축제



41 ◆ 2001, 지역문화의 해



- 2 ◆ 날줄씨줄 · ‘사람’ 이 주인공되는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강신표
- 4 ◆ 역사再조명 · 논개의 총질만큼 뜨거운 4백년 대논쟁 윤성호
- 8 ◆ 이달의 문화인물 · 강릉이 낳은 빼어난 오누이 문인 허균 · 허난설헌 편집부
- 9 ◆ 고향이 좋다 · “공해 이미지 씻고 문화 향기 회복 할터” 강민철
- 17 ◆ 특집-축제 · 축제! 이렇게 벤치마킹하라 이원태 · 정강환 · 이각규
- 25 ◆ 한편의 시 · 秋日微吟 권운태
- 26 ◆ 문화계 CEO의 삶과 일 · ‘야생차’ 가꾸고 ‘전통음식’ 지키는게 내 삶 강민철
- 28 ◆ 이달의 세시풍속 ·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 처럼 박후식
- 30 ◆ 월드컵! 지역문화로 이기자 · ‘석전놀이’ 가공하면 세계적 매스게임 이정덕
- 33 ◆ 참관기 · ‘고향의 봄’ 부르며 민족의 동질성 확인 안진수
- 3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 · “한복에다 한약재 넣은 ‘향낭’ 잘나가요” 강민철
- 38 ◆ 잃어버린 민속, 찾아야할 민속 · 보성군 감동마을 당산재 류장수
- 41 ◆ 2001, 지역문화의 해 · ‘예산’ 없으면 ‘예술’ 불가능 박계현 · 김두진
- 49 ◆ 기고 · ‘평생 걱정’ 하지만 ‘하루 근심’ 안한다 이문학
- 52 ◆ 상식 · 대전사랑문화유산순례답사 · 문화강좌 퀴즈 대전지회 제공
- 53 ◆ 속담 · 우리 고장의 속담 오산문화원 제공
- 54 ◆ 한국의 동식물 · 열목어 노닐면 이곳이 삼산유곡이려나 편집부
- 56 ◆ 대중문화 바로보기 · 다시 보는 명작 대부 The Godfather 박계현
- 58 ◆ 생활의 지혜 · 풀뿌리 · 나무껍질도 잘쓰면 ‘특효약’ 편집부
- 60 ◆ 다시생각 · 日 역사왜곡 문제 지혜로운 대응 필요하다 편집부
- 64 ◆ 지역문화 뉴스 편집부
- 74 ◆ 오피북 · 메밀꽃 필 무렵의 불평장 평장문화원 제공
- 76 ◆ 신간안내 편집부
-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1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편집부
- 80 ◆ 지방문화원 홈페이지순례 · 속초문화원 전명찬

‘사람’이 주인공되는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어 마전 경남 산청 시천에서 열린 ‘남명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선비문화축제’에 다녀왔다. 마침 ‘2001, 지역문화의해’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상남도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 지역문화 현장 탐방 및 대화’의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되어 두 행사를 동시에 참관하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됐다.

특히 지리산 자락의 천왕봉아래 자리잡은 ‘산천제’와 ‘덕천서원’ 그리고 남명 선생의 묘소가 함께한 곳에 높은 산과 맑은 물, 맑은 공기는 내 정신을 맑게 해 주는 귀한 시간과 공간이기도 했다.

지역문화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장소인 ‘삼성연수소’에서는 ‘남명학과 21세기 유교부흥운동’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평소에 만나보기 힘든 귀한 학자들을 만나 본 것도 내게는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번 여름방학은 이외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선비문화 축제’에 가기 일주일전 3주간에 걸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맥칼론 교수와 인디애나 대학교 로저 자넬리 교수의 후의로 색다른 미국의 ‘지역사회와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위스콘신주의 제네바 호수 근처에 있는 ‘시카고대학 부설 예르키스 천문대’를 방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디애나 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코너스 플레이어리’라는 1830년대 미국 개척시대의 민속촌을 구경한 것이다. 예르키스 천문대는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천문대로서, 미국이 서부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철도건설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천문대를 건축하고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천문대를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의 역사가 오늘을 만들 때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던가에 대해,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내 귀와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천문대가 철도건설에 기본이 되었다는 사실부터가 뜻밖이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까지 발전된 첨단과학기술이 자기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는 그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과거가 오늘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 천문대를 구상하고, 건설하고, 연구하며 발전시킨 인물들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들의 공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 속에는 그 인물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미하는 것으로 듣는 이들의 흥미를 북돋



강 신 표
인제대 문화인류학 교수

우기도 했다.

‘코너스 플레이어리’ 민속촌에서는 미국의 과거 역사를 한눈에 보고, 듣고, 느끼게 했다.

우선 가옥을 위시한 모든 건축물을 1830년대의 것으로 완전히 복원해 놓았는데, 약국, 학교, 대장간, 가게, 목공소, 옷가게 등이 옛날 모습으로 지어져 있다.

그리고 건물 하나 하나에는 옛날 당시의 옷을 입고, 그때의 말씨로, 그때의 일상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전기도 없고, 그래서 어둡지 않느냐고 물으니, 창문이 있어 충분하다고 답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느냐고 하니 모르는데 아주 먼 나라인 것 같다고 답한다. 어느 집 앞에 어린 남자 아이가 앉아있어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자기 부모가 그 집에 빛을 많이 저서 그 빛을 갚을 때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동안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하루에 몇 전을 벌기 때문에 한참 일해야 할거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데, 모두들 연극배우처럼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생활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옛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당시의 생활을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에 얼마나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많은가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한국민속촌은 건물과 내용물이 전시의 위주라면 그곳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있는 총체적 생활 모습을, 관광객과 대화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배우도 아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충실히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의에서 각 도(道)로 순회하면서 지역 문화의 현안과 대안을 논하는 현장탐방 및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받은 강한 인상은 각 지역마다 자기 고장의 문화적 전통을 사랑하면서 가꾸고 있는 숨은 문화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지역문화’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지역사회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생활사를 배경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년 간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경험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생활 관습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팽개쳐 버리고만 것이 많다.

낮선 사람들이 낮선 곳에서 만나 낮설게 살 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공동의 가치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 변화의 소용돌이도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조금씩 되돌아보기 시작한 셈이다.

우리의 고장에서 살다 간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지역사회

와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 각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들이 새로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남명 조식선생 탄신 500주년기념 선비문화 축제’도 그 뜻이 새롭다. 



코너스 플레이어리 민속촌은
1830년대 모습으로
약국, 학교, 대장간, 가게, 목공소,
옷가게 등을
복원해 놓았다.
그리고 건물 하나 하나에는
옛날 당시의 옷을 입고,
그때의 말씨로,
그때의 일상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어느 집 앞에
어린 남자아이가 앉아있어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자기 부모가 그 집에 빛을 많이 저서
그 빛을 갚을 때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동안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하루에 몇 전을 벌기 때문에
한참 일해야 할거라고 한다.

논개의 충절만큼 뜨거운 4백년 대논쟁

논개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죽은 지 400년이 한참 지났어도 논쟁거리들은 더 생겨나고 있다. 논쟁이 많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소모적이거나 민족화합을 깨트리는 논쟁은 가치가 없지만,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살리고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부정할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평범하지 않은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역사의 진실 찾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요즘 논개를 둘러싼 논쟁은 수없이 많다. 대충의 논쟁거리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가 장수사람이나 진주사람이나, 기생이나 부인이나(최경희 장군의 부실이나), 일제시대 민족반역 행위를 한 화가가 그린 미인도 <논개>를 사당에 모셔두는 일이 과연 옳은가, 일본에 논개사당이 있고 이를 어떻게 봐야 하며 해결방안은 없는가, 논개와 관련한 문화행사와 조형물 제작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고 있는가 등이다.

장수사람이나 진주사람이나

장수는 장수사람이기를, 진주는 진주사람이기를 갈망하지만 기록마다 다른 근거와 해석을 낳게 한다.

진주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장이었던 김범수씨는 1998년 8월 <논개는 진주 사람이다>는 제목의 조그마한 자료집을 냈다. 그리

고 2000년 진주문화원 주최로 토론회가 진주시청에서 열렸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당시 진주문화원장도 '논개는 진주사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주문화원 전체 회원들의 뜻이라기 보다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몇몇 회원들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진주문화원 회원 중에는 '논개는 진주사람'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논개는 진주사람이다'는 김범수씨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종 향토지리지 인물편에서 논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유몽인(1559~1623)의 <어유야담>에서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고 기술했고, 1832년 편찬한 <진주목읍지> '인물' 편에 보면 고려와 조선시대 많은 인물들을 수록했는데 모두 진주사람 뿐이며, 여기서 기술한 '의기 논개'도 진주사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논개의 출생이 진주라는 주장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씨는 <어유야담>과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호남읍지> 등에서는 장수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용되어 왔으나, 이는 <진주목읍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향토지리지 <진주목읍지> 인물편에서 논개를 다루고 있기에 '논개는 진주사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물편에 수록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출생은 다른 곳에서 했더라도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영



윤 성 호
진주신문사 편집부장

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향토인물로 다룬 지리지가 많다.

논개가 장수 출생이라는 첫 기록은 <호남절의록>(1799년)에 나타난다. <호남절의록>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기의 의병연구와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김범수씨는 '가치가 없는 책이다'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생이나 부실이나

논개는 '의기' '진주 관기' '관기' '기' '장수 관기' '첩' '천첩' '부인' '규수(양갓집 딸)' 등으로 불리었다. 이 가운데 과연 어느 호칭이 적합한가.

조선 정부는 그를 '의기'라 불렀다. 이는 논개가 죽은지 147년만의 일이었다. 그의 거룩한 죽음을 안 진주사람들은 그를 정부에서 포상해야 한다고 바랐고, 이는 그가 죽은지 한참 뒤에 의기사가 지어지면서 붙여진 이름이 '의기'였다. 그래서 진주성 안에 있는 그의 사당도 '의기사'다. '의로운 기생'이라는 뜻이다. 그의 죽음을 기록으로 먼저 남겼던 유몽인은 <어유야담>에서 '진주 관기'라 했다. <의암기>에서는 '관기'로, <호남절의록>에서는 '기'로, <호남삼강록>에서는 '장수 관기'로 기술했다. 이런 근거가 바탕이 되어 조선 정부는 논개를 '의기'라 불렀다.

'첩' '천첩'은 최경회 장군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붙여진 말이다. 영조 때 선비 권적은 <태장시장록>에서 '천첩'이라 했고, 최경회 장군의 신도비를 썼던 송병선(1836~1905)은 신도비명에서 '첩'이라 불렀다. 송병선은 "첩



진주 남강변에 서 있는 논개사비

논개도 공(최경회)이 죽던 날, 속임수로 피어 낸 적장을 밀면서 강물에 떨어져 죽었으니, 또한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런 근거로 해주 최씨 문중에서는 논개가 최경회 장군의 부실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할머니라는 주장이다.

논개가 양반 가문의 딸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논개를 양반 가문의 딸로 처음 기록한 사람은 장지연(1861~1921)이다. 장지연은 <일사유사>에서 "논개는 본디 장수현 양갓집 딸이다. 재주와 인물이 빼어났다. 그러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자 의지할 데가 없었고 집도 가난했다. 마침내 기녀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데로 떨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양갓집 딸'이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은호의 미인도 <논개>를 그냥 둘 것인가

의기사 안에 있는 미인도 <논개>를

떼내야 한다는 근거는 다양하다. 이 그림은 영정이 아니라 <논개>라는 이름이 붙여진 미인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은호가 쓴 각종 서적에 보면, 그는 '논개영정'이라 하지 않고, '미인도 <논개>'라고 해 놓았다. 그리고 영정이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머리모양이나 복식이 논개가 살았을 당시 조선 여인이 아니라 19세기 말 조선 여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모양이 조선 여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미술계에서는 김은호가 일본화풍(구루법)으로 미인도를 그렸는데, 미인도 <논개>도 일본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기사는 전시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좋은 그림을 보기 위해 의기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논개의 충절을 느끼기 위해 의기사를 찾는다. 좋은 그림이라면 정신을 기리는 사당에 걸어 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해 걸어 두어야 한다.



‘논개’ 미인도가 걸려 있는 의기사(위)와 의암사

또 현재 의기사 안에 있는 미인도 <논개>를 떼내야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민족의 운명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적 인물에 붓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의 더러운 붓질로 인해 논개의 숭고한 충절의 정신이 훼손 당하고 있으니 빨리 떼내자는 주장이다. 김은호는 민족반역자 우두머리로 꼽히고 있다.

이 그림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도 있다. 몇몇 시의원과 향토사학자들은 96년 진주시와 시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미인도 <논개>는 잘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이다. 김은호는 당대 제일 가는 화가였고, 그런 사람의 유명 작품을 걸어 두는 것도 좋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김은호의 그림을 의기사에 걸도록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면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은

호도 한때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진주시는 현재 이 그림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일본 논개사당을 그냥 둘 것인가

보수원. 일본에 있는 논개사당 이름이다. 후쿠오카 인근 히코산(영언산)에 있다. 우에즈카라는 일본인이 1970년대부터 건립한 것이다.

우에즈카는 남강에서 논개의 혼을 건져가는 의식을 지냈다. 그리고 위패와 묘소도 만들었다. 물론 논개묘는 가묘이지만, 그 속에 논개의 혼을 상징하는 징표를 넣어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0년대 말 당시 진주시장은 일본인 우에즈카에게 감사패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진주에서 몇몇 인사들이 교류를 벌인다면, 해마다 한 차례 히코산에서 열리는 합동위령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일본인들 사이에는 보수원에서 빌면 아이를 잘 낳고, 가정이 화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논개를 잡신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을 다른 나라,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서, 그것도 잡신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논개를 욕보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일본에 논개사당이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선린우호 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논개를 잘못 모시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잘 모시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논개의 정신을 일본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좋다는 말을 한다.

최경희 장군 후손들은 일본 논개사당의 흔적을 완전히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인이 남강에서 건져 간 것으로 되어 있는 논개의 흔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남강에서 '반흔제'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히코산에 있는 논개 묘소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진주와 장수사람들이 일본 논개사당이 건립되도록 도와준 과정, 후쿠오카총영사관에서 도와준 내용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주 최씨 가문 후손들이 논개를 잡신처럼 만들어 놓은 보수원을 사용하지 말라는 글귀가 적힌 공고문을 봉인하고 있다.

표준영정 제작 할 수 없다

진주문화시민연대는 2000년 12월 말 '의미있는' 청원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문화관광부와 진주시, 장수군, 화순군 등에 제출된 청원서 내용은 <논개> 표준영정을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하자는 것이었다. 논개는 아직 표준영정이 없다. 논개의 충절을 기리고자 한다면 그를 나타내는 영정부터 있어야 하고, 표준영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표준영정을 관련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제작할 경우 동서화합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진주와 장수에 있는 그림이나 동상은 표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것들이다. 진주에는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가 '영정' 처럼 의기사에 걸려 있다. 장수도 마찬가지다. 의암사에는 김은호가 그린 같은 그림이 걸려 있고, 장수의 논개 생가에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한결같이 표준이 아니다. 표준영정이 만들어질 경우 의기사와 의암사

에 있는 김은호 그림은 떼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장수에 있는 논개 동상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논개생가의 동상은 머리 모양(없은머리)과 복식 등에 있어 고증을 거쳐 만들어졌다.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와 완전히 다르다. 김은호 그림이 영터리라는 사실은 생가의 동상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장수 논개 생가의 동상이 갖는 문제점은 40대 중년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개가 순국할 당시의 나이는 19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장수군은 동상을 만들면서 표준동상 지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진주시는 논개동상을 만들어 표준동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면 논개와 관련한 상징물(그림·동상)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수군은 이미 동상을 세워 놓았지만 표준동상이 아니기에 진주에서 동상을 만들어 표준동상 지정을 받을

경우, 장수에 있는 동상은 '가짜'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동상 건립에 있어서도 진주와 장수가 다툰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논개'를 위하여

논개와 관련한 '뿌리 찾기'의 열정이 너무 높은 탓인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쳐 비난을 받는 일들이 많다. 사실에 근거하거나 정당한 논리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논개는 특정 지역의 인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논개의 충절정신은 어느 역사적 인물보다 크고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논개의 충절정신을 본받고, 이어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앞에 열거한 논쟁들이 이런 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의 논개'가 아니라 '우리의 논개'가 되어야 한다.

강릉이 낳은 빼어난 오누이 문인 허균 · 허난설헌

교 산 허균과 난설헌 허초희는 문향(文鄕) 강릉이 낳은 빼어난 오누이 문인이다. 조선 중엽 강릉에서 태어난 허균은 혼란한 시대에 잦은 국난과 외침, 파쟁에 시달리면서도 부패해 무너져 가는 나라를 걱정해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다.

그는 유교사회 하에서도 불교와 도교, 천주교 심지어 민속종교를 넘나드는 사상의 자유로움을 지녔고, 오도된 권위와 사회적 질곡에 맞서 개혁과 저항의 행동

가로 평생을 보냈다.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사상의 획일성에 반기를 들고 부패한 정치와 잘못된 제도를 실천적으로 개혁하려 했으며,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오직 두려워 할 만한 자는 백성뿐이라고 갈파해 왕조사회를 뒤흔들었다. 더 나아가 바른 정치를 이끌어내갈 호민(豪民)인 민중들이 힘을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이상국가의 실현을 현실정치를 통해 실천하기를 꿈꾸었다. 따라서 그를 선구자나 선각자라고 평하기보다는 실천가요, 행동가요, 개혁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조선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유일하게 복권되지 못했으며, 모두가 언문이라고 천시하던 한글로 이상국가의 꿈을 그린 <홍길동전>을 남겼다. 한마디로 그의 꿈은 평등사회, 개방사회, 국제사회를 실천하는 것이며, 이미 400년 전에 우리가 나아가갈 민주사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히 부각된다.

허균의 누이인 난설헌 허초희는 27세로 요절했지만, 사후에 나온 213수의 난설헌 시집으로 동양 삼국에 가장 뛰어난 여성시인으로 평가를 받았다.

난설헌은 여성에게 주어진 질곡의 사회적 제한을 극복하

허균(許筠 : 1569~1618)

조선중기의 문인, 정치가,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저술
주요저서 : '성소부부고' 등

허난설헌(許蘭雪軒 : 1563~1589)

조선중기의 여류시인
애상적이고 도교적인 시풍의 독특한 시세계를 이룸
주요저서 : '난설헌집'

지 못하고 규원(閨怨)의 세 가지 한(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 두 자녀의 죽음)을 품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신선적 초월의 세계관을 그린 시에 자신의 한을 선명하게 표백했음은 놀라운 일이다.

남존여비(男尊女卑)가 엄연히 존재하던 사회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에 탁월한 시상을 형상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허난설헌은 작은 나라에 태어난 것,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태어난 것, 인품과 시재를 겸비한 지아비를 못 만났고 자녀에게 모성애를 베풀지 못한 것을 세 가지 한이라 하였다. “참으로 하늘 선녀의 글재주를 지녔다”든가 “시와 문장은 하늘이 내어서 이룬 것들”이라는 허균의 평가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그의 시에 응축된 시적 상상력과 영롱한 신선적 세계관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으로 지속될 것이다. **문**



허난설헌

문화원장 인터뷰 세계문화 교류 사업 펼치는 이두철 울주문화원장

“공해 이미지 씻고 문화 향기 회복 할터”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외 소내대(外小內大). 울주군청과 울주군의회 사이로 돌아가면 길쭉한 가건물 하나가 나온다. 울주문화원.

방 한칸이 문화원 전부. 그러나 겉모습만을 보고 울주문화원을 속단하면 오산이다.

오는 15일 개원 2주년을 맞는 울주문화원의 지향점을 들여다 보면 ‘통큰 문화원’임을 알 수 있다.

지난 8월 11일엔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팔각정 특설무대에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회 간절곶 바다동요제’를 성황리에 열었는가 하면 매년 일본과 중국 등과의 문화 교류도 병행해 주민들의 문화적 안목과 식견을 넓혀나가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단기간에 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이두철 문화원장(56)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울주의 대표적 원자력 제어계측 회사인 삼창기업의 회장으로 더 이름이 알려진 이 원장을 회장실 반쪽만큼도 안되는 ‘비좁은’ 문화원 사무실에서 만나 문화원의 근황과 향후 비



이두철 울주문화원장



울주문화원이 개최한 제1회 간절곶 바다동요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해도 선례에 근거하는 관행 때문에 획기적인 지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 투자를 안한 상태에서 손님을 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을 들어봤다.

이 원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들릴락 말락 혼자말을 되뇌었다. “책은 계속 쌓여가고...”

그도 그럴것이 원장 직무 책상엔 이 두철이란 이름 석자가 각인된 명패만이 누가 주인이란 사실을 알려줄 뿐 그 위엔 크고 작은 책들이 마치 돌탑처럼 층층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문화원사를 빨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올 상반기에 이미 2억원을 들여 50억원 규모의 문화원사 준공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언제쯤 새로운 문화원사를 보게 되겠느냐고 묻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 원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제 울주문화원은 개원 2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기업체 회장으로서 문화원 원장을 겸직해보시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은 오너(owner)니까 빨리 결정할 수 있지만 문화원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특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군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나같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감잡하지만... 문화원 일을 하려면 좀더 느긋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원장은 그러나 “둘 다 장단점이 있다”며 “문화원은 기업체처럼 일처리가 빠르지 않는 대신에 문화자본을 일구는 공익사업이러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문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지않느냐고 반문한다.

문화원이 가장 역점을

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울주문화원은 출범후 향토문화자료 발간과 각종 문화행사개최, 문화재 위탁관리 등 많은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도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와 국보 제147호인 천전리 각석 등의 문화재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엔 동요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삼광분교에 설치중인 향토사료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역점 사업중의 하나는 군지 편찬사업인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주문화원은 이밖에도 21세기 정보화·국제화 시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 해외문화교류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 문화원은 매년 문화원 가족들

이 자비를 들여 일본 대마도의 박제상 유적지와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 등 일본과 중국 등의 해외문화유적을 탐방해오고 있습니다”

울주문화원은 이런 행사를 통해 선진적인 해외의 문화유산 보존 실태 등을 살펴볼 기회를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울주문화원은 오랫동안 중국 요령성의 심양시 조선족 문학회에도 지원을 계속해 최근에는 ‘료동문학’이란 창간호를 내는데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미래사회를 짊어질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각별하다.

지난번에는 인근지역의 초등학교 1백4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간절곶바다 동요제’를 열고 고사리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울주는 ‘공해의 도시’, ‘딱딱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큰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마음을 풀어놓고 즐겁게 뛰어놀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트인 간절곶에서 동요제를 열었는데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언론에서도 잘 다뤄주는 등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동요를 많이 보급하면 아이들의 정서가 순화되고 착한 마음이 싹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장은 “동요는 어른들도 부르면 좋아하는 노래”라며 “이 동요제를 점차 전국 대회로 키워나가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울주엔 박제상 생가 등 신라문화유적과 · 암각화 · 각석 등 신석기 문화, 그리고 가지산 · 운문산 · 천황산 · 고현상 등 일명 한국의 알프스 산맥이라 불리는 수만년의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문화가 산재해 있습니다.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일부 파괴되고 훼손된 문화유산을 다시 회복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공해가 많은 딱딱한 공업도시로 알려진 울주를 전군민의 화합을 이루는 부드러운 문화도시로 바꾸는게 꿈입니다”

울주문화원의 일꾼

울주문화원에는 이두철 원장과 함께 이부열 사무국장, 김금자 간사, 문성환 문화재관리총괄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두철 원장과 이부열 사무국장은 남창중학교 선후배간이다. 이 국장이 선배다. 이부열 사무국장은 방송국 보도부장 출신으로 현재 울산수필문학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지난 8월 18일엔 영호남수필문학회를 울산에서 주최했다. 김금자 간사는 사무국의 살림을 도맡아 문화행사를 끝마무리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문성환 문화재관리총괄요원은 울주문화원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 9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힘쓰고 있다.



‘료동문학’ 창간호를 내는데 힘쓴 울주문화원 이두철원장에게 조선족 문학회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그곳에 가고싶다

설화 · 암각화 · 용기가 있는 울주군

태화강 물줄기 따라 굽이치는 숨은



“남 창 남창 베리 끝에 / 무정하다 우로바야 / 나도 죽어 후
 생하면 / 낭군님부터 정할래라” 울주 시내를 달리다
 보면 태화강이 눈에 들어온다. 태화강이 홍수로 범람
 한 어느 여름날 한 젊은 신랑 신부와 누이동생 셋이 태화강
 상류 베리끝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신랑의 뒤를 따라오던
 신부와 누이동생이 그만 발을 헛디더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만다. 순간 비명에 놀란 신랑이 영겁결에 옷자락을 건져 올
 렸다. 자기 아내였다. 누이동생은 성난 강물위로 한번 얼굴
 이 솟구치더니 탁류에 휩쓸려 더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
 다. 그 후 누군가 이 노래를 불러 지금껏 전해진다고 한다.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엔 우리가 처용설화 다음으로 잘 아
 는 박제상과 그 가족들의 슬픈 이야기가 어려웠는 바위가 서
 있다. 망부석. 박제상은 신라 눌지왕때 왜에 불모로 잡혀간
 왕자 마사흔을 탈출시킨후 왜왕에게 자신은 불잡혀 “일본의
 신하가 되면 벼슬도 주겠다”는 제의를 “왜족의 신하가 되느
 니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되겠다”는 말로 단호히 거절하
 다 소사당한 인물이다. 고국에서 남편과 아비를 기다리던 아
 내와 두딸은 치술령에 올라 통곡하다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높다란 굴뚝이 세워진 공업도시로 연상되는 울주를 둘러보
 면 설화와 함께 불거리와 먹거리가 더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

굳이 여행코스를 따지지 않을거라면 시내에서 승용차로
 30여분 달려 온양면 외고산 옹기마을에 가보는 것도 좋을듯
 싶다. 비가 내리더라도 하는 날이면 길가에 쌓여져 있는 옹
 기들이 반질반질 윤기를 내며 손님을 맞는다. 50년에 자리
 를 잡은 외고산 옹기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옹기마
 을로 알려졌다. 한때 4백여명의 도공이 운집해 있던 이 마을
 은 그 수요가 크게 줄어 40여명만이 옹기를 굽고 있다. 그러
 나 이 마을은 전통 그대로 장작 가마를 이용해 옹기를 만들
 기 때문에 타 지역 옹기에 비해 재질이 우수하고 독성이 없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엔 옹기전시회관이 건립되어 한
 눈에 옹기의 변천사를 읽을 수 있다. 아이들과 가볼만 하다.

또 하나 가볼만한 곳. 반구대 암각화. 태화강 상류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옹기마을 반대편으로 핸들을 돌려야 한
 다. 국보 제285호인 이 유적은 고래·물개·바다거북·사
 람·사슴·멧돼지·개 등이 그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
 들은 청동기 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을
 보려면 대곡천 옆으로 걸어서 10여분 들어가야 하는데 인근

이야기들

에 사연담이 건설됨에 따라 여름철엔 물에 잠겨 버리고 갈수기인 2월에서 5월경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오후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려말 포은 정몽주가 유배왔을 때 자주 들렀다는 반구대와 그 주변에 있는 반구서원, 그리고 푸른 숲과 기암괴석의 수려한 풍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본전을 뽑는 기분이다.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천전리 각석은 마치 우주인이 그려놓은 듯 아직까지 해석이 불가능한 그림문자가 그려져 있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한쪽에는 신라시대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요새들이 낙서한 흔적도 몇군데 보이지만 필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곳은 스님들의 화장터로 쓰인 탓에 가운데 부분만 떨어져 나가 안타까움을 준다.

다시 시내로 돌아오는 길엔 '와아이라 고폘이'라는 곳이 전승되고 있는 언양을 지나게 된다. 이 곳은 고폘이를 할때 반소절마다 부정에 부정을 걸어 긍정화시키는 추임새가 특징이다. 언양 토속회가 60여년만에 민속행사로 재현해 냈다.

또 한가지 언양과 봉계는 불고기로 유명하다. 이곳의 특산물인 미나리와 함께 상추에 소금뿌린 생고기 한점 구워 올려 놓고 송엽주 한잔 권커니 받커니 하다보면 여독이 싹 풀린다. 매년 5월(언양)과 10월(봉계)엔 한우 불고기 축제가 열려 전국의 미식가들이 몰려든다.

아직 다음 여정을 정하지 못했거든 동북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에 올라 푸른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이 참에 인생 여정도 정해보라. **☞**

울주문화원 추천 출향인사 인터뷰

땅이름 연구하는 강길부

“흙냄새 나던 고향이 오늘의 나

“바람이 부는 초겨울날 나무를 하고 산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던 기억이 납니다”

울주의 출향인사 강길부 전 건설교통부 차관(59). 지난 4월1일 장장 36년동안의 공직생활을 청산한 그는 인터뷰 중간중간에 자신을 ‘농사꾼’ ‘지계꾼’ 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탈했다.

그랬다. 일제시대에 만주로 건너간 아버지가 함경북도 청진에서 생활하다 해방후인 47년 가족을 데리고 울주로 내려왔는데 몇 해 지나 곧 6.25가 터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 천붕(天崩)이라 했던가?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만것이다.

그때 강씨 나이 아홉살. 줄지에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아야했다. “방과후엔 소꼴 먹고 똥장군 지고 다니고 밭에 거름주고...” 하루해는 노루꼬리처럼 짧았다. 어리광이나 부릴 나이에 벌써 어른몹을 한다고 장골(壯骨)로 불렸다. 농사가 주업이고 학교는 부업(?). “아침에 물새는 눈두렁 막다 보면 학교에 매일 늦기 일쑤여서 선생님한테 혼도 많이 냈지만 그래도 흙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나이가 들어도 고향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홉살부터 농사일 도맡은 ‘장골’

제15회 보통고시에 합격한 강씨는 군 제대후인 65년 3월 22일 고향을 떠나 서울 청량리우체국 행정주사보로 사회 첫발을 내디뎠다.

성대 행정학과를 다니며 ‘주경야독’을 했고 대학졸업무렵엔 건설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71년 공무원 사회의 큰 관문인 행정고시에 합격한데 이어 승승장구 건설공무원교육원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부 도시국장·주택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감정원장 등 건설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바쁜 공직 생활과 중에서도 학업을 계속해 경원대에서 도시공학박사학위도 받았다. 더욱이 건교부 재직시 ‘성장거점도시’ 개념을 처음 도입해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구상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80년 초 국립지리원 조사과장 재직시엔 땅이름 정비를 주장해 ‘한국지리 총론’을 발간하는 산파역을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명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땅이름 국토사랑’이란 역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1940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실시했는데 사실은 이보다 20여년 앞서

前 건설교통부 차관 를 만든 어머니”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을 단행하면서 일종의 창지개명(創地改名)을 시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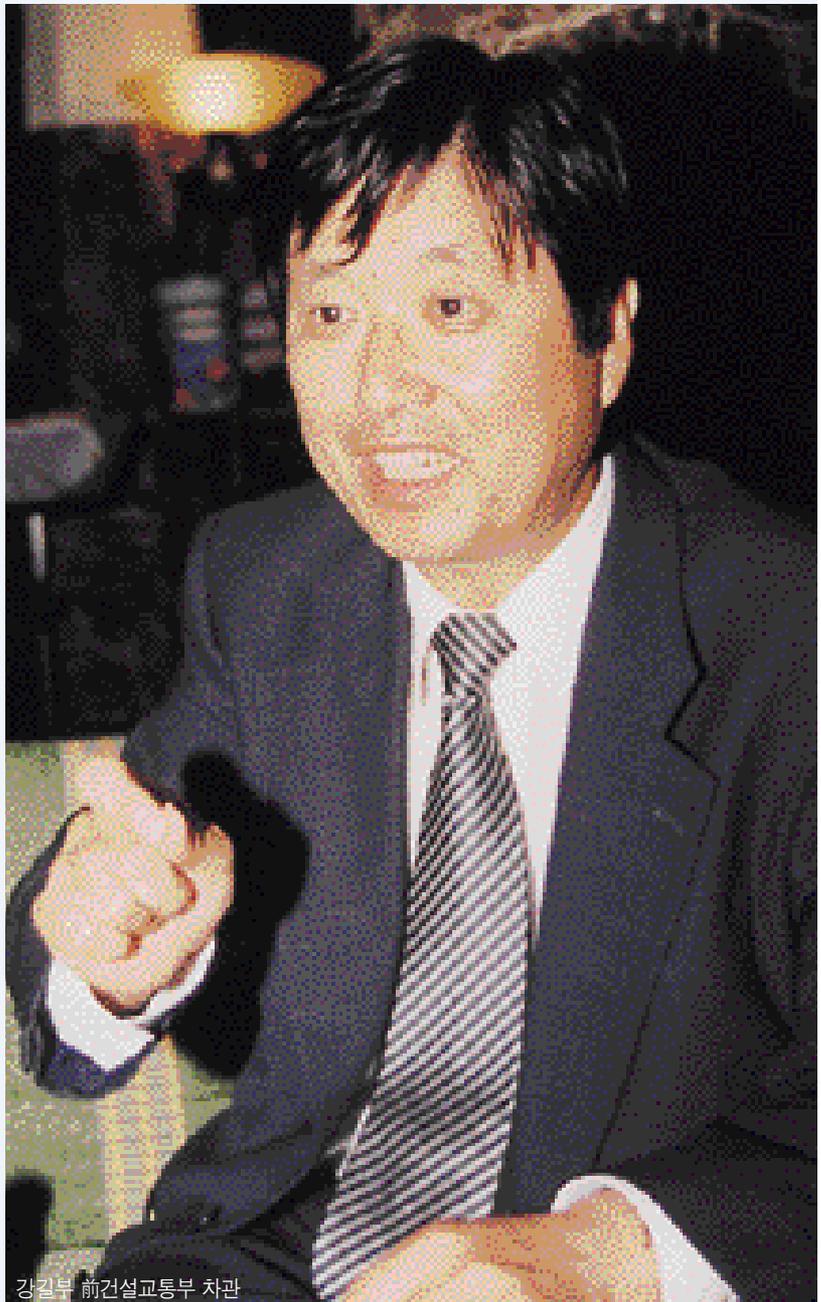
강씨는 “땅이름은 우리 선조의 생활 모습과 문화유산·자연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화석”이라고 말했다.

“한장의 지도를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보노라면 재미난 소설을 읽는 기분이 듭니다. 온천·온정·온양하면 온천, 장승 배기하면 장승, 역촌동하면 역마을, 잠실하면 뽕밭, 이문동하면 도둑을 막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주변의 산하와 하천까지 헤아리면 이제까지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지도에 초차 ‘밤나무골’이란 땅이름이 동네사람들도 모르는 ‘울곡’이란 한자어로 표기되는 등 오류가 많아 문화와 환경을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그는 “독도 영유권을 고지도에서 찾고 있음을 보더라도 올바른 땅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땅이름은 ‘지역문화’ 그 자체

“땅이름이야말로 ‘지역문화’ 바로 그 자체예요” 토지·건설 부문에서 오래 일했지만 그에겐 항상 문화가 앞선 화두다.



강길부 前건설교통부 차관

“산과 하천·평야를 잘 알아야 어디에 공장과 주택을 짓는 게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고장의 문화를 알고 이것을 새롭게 현대생활에 맞게 재창조해야 해요. 애항심이 곧 애국심이에요. 가장 향토적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아닙니까? 다국적 기업도 그 지역에 문화가 없으면 투자를 안하는 게 현실입니다”

“울산도 인구가 1백만이라 하지만 실제 토박이 인구는 20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울산처럼 타지 출신이

●
 “한장의 지도를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보노라면 재미난 소설을 읽는 기분이 듭니다. 온천·온정·온양하면 온천, 장승배기하면 장승, 역촌동하면 역마을, 잠실하면 뽕밭, 이문동하면 도둑을 막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주변의 산하와 하천까지 헤아리면 이제까지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곳은 더욱더 문화가 주축이 되지 않으면 지역민의 단합과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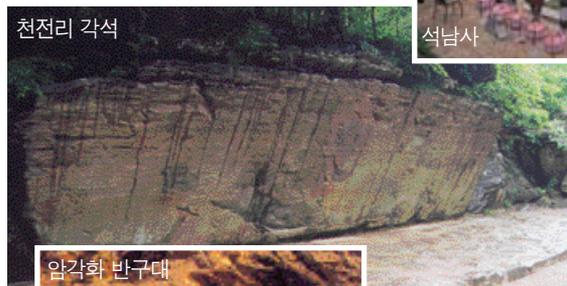
“6·25때 콩 볶는듯한 소총소리를 어둠속에서 들으며 어린마음에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했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피흘린채 부상당한 사람들, 소를 몰고가다 화를 당한 흔적들... 그대로 전날밤의 악몽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누구할 것 없이 배고픔에 미군들에게 ‘기브미 초코렛’을 외쳐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어느 샌가 공업사회로 바뀌고 옛날엔 꿈도 못꿨던 ‘마이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잊고 마치 ‘한풀이’라도 하듯 돈을 쓰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서 안됩니다. 가끔 고향을 생각합니다. 더러는 고향에 남아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고 또 더러는 땅값이 올라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립니다.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무원이 됐습니다. 어느 게 성공한 인생인지는 몰라도 고향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어머니와 같은 원천적 힘입니다” **☞**

석남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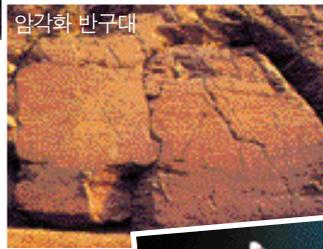


석남사

천전리 각석



암각화 반구대



자수정



송엽주



미나리



한우불고기

울주는 암각화·각석 등의 선사 유적을 비롯 석남사·박제상생가, 특산품인 한우불고기·송엽주·미나리·자수정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 디자인워크〉

사진으로 보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특집 축제! 이렇게 벤치마킹하라

무더위가 가시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 다가왔다. 축제 기획자들은 새로운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꾸미길 원하고 관객은 예전과 다른 체험을 원한다. 해가 바뀔수록 축제가 늘어나 그 수가 무려 5백여개에 육박하고 있다. 둘러보면 대동소이한 축제들이 적잖다. 그러나 축제장을 한두번 찾아본 독자라면 더이상 '그 밥에 그나물' 식의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 고유한 색깔을 갖고 축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곳은 많다. 충남 서산에서 열리고 있는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나 경기도 '남양주 세계야외공연 축제' · 경북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등은 성공한 축제의 본보기가 되고있다. 또 세계축제의 대명사격인 영국의 에덴버러축제와 TV대하드라마의 방영에 맞춰 후광을 입은 일본의 '도쿠가와 요시노부 전시관' 은 우리나라 축제 기획자들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라 할 만하다. 이들 축제를 알아본다.

국내의 지역축제 성공사례

관객은 ‘편안함’ 보다 ‘곤장’ 원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사업, 집중육성축제 지정사업 등이 그것들이다.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축제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여, 예산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축제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평가의 초점은 방문객 설문조사,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 외국관광객 유치실적, 축제 참관평가 등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평가를 통한 차등 인센티브 지원정책은 지역별 균형 있는 축제 지원정책과 함께 축제 육성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와 함께 필자가 직접 참여해 본 몇몇 축제를 통하여 축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의 장,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지난 봄 신문의 문화면에는 “타임머신 타고 역사 속으로”, “주말 가족과 함께 역사체험의 장으로” 등 재미있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충남 서산에서 개최된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소개하는 기사였다. 해미읍성은 평지에 석성을 쌓아 수 백년의 세월동안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사적지에 불과한 곳이다.

그러나 축제 기간에는 달랐다. 웅장한 진남문을 들어서면 갑옷 입은 수문병과 한복차림의 도우미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성곽 안으로 들어서면 소달구지를 탄 어린이들은 해맑은 웃음을 터트리고 말을 탄 장군과 호위병사들은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지나다녔다.

상평통보를 본 뜬 주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음식점과 방물가게 앞에는 관람객들이 흥정을 한다. 놀이판의 한 권에선 각설이패가 ‘난리굿’을 친다. 천막에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나온 진짜 한의사와 의녀들이 손님을 맞아 진맥을 해준다. 옥사 체험장에는 압송되어온 죄인이 형틀에 묶여 큰칼을 목에 차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명을 늘어놓다가 곤장을 맞는다. 애인과 함께 재판을 구경하던 처녀는 ‘신성한 국법의 집행현장에서 웃은 죄’로 판관에게 잡혀나가서 곤욕을 치른다.

역사체험축제가 성공한 배경에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문화원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축제의 주관단체인 서산문화원이 지역축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 3년여에 걸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기존의 지역축제를 분석하고 지역문화자원을 조사한 데 이어, 축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제개선 작업을 꾸준히 벌인 결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로마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 원 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걸출한 예술감독 안목으로 재단한 '남양주 세계야외공 연축제'

서울에서 양수리를 지나 북한강변의 새터삼거리를 지나 가평·춘천으로 진행하면 웬만한 곳엔 소위 '러브호텔'이 자리 잡고 있거나 지역개발 명분으로 자연을 훼손시킨 곳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그 곳에서 지난 초여름 '국제적인' 야외 공연축제가 개최되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러브호텔의 천국이란 불명예를 씻고 문화·생태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잔치판이 2001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였다.

이번 축제는 임진택(51, 연출가)이란 걸출한 예술감독의 손에 의해 축제의 주제가 높은 예술성으로 승화된 환경친화형 축제란 점과 3억원도 안 되는 저예산으로 치른 국제규모의 축제란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해외공연물은 거의 무언극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고, 내용도 낙태문제를 고발하는 등 생명과 환경이란 주제에 부합하도록 꾸몄다. 조명이나 음향도 관객을 압도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하여 자연 친화적 설비로 마련했다.

축제가 열린 금남리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거의 방치된 지역이었지만 생업을 포기하고 통과여객에 의지하던 주민들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제 지역활성화는 추구하되 환경훼손의 위험과 환경보존의 가치를 축제(예술)를 통해 자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앞으로 축제 기간의 교통불편이나 소음 등 사소한 문제를 포함해 더 이상 지역행사에 방관자로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집중화와 특성화로 성공한 한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전통문화자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자인하고, 관광객 유인요소를 높인 기획이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보인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하회탈춤' 한 종목을 내세운 축제가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탈춤은 물론, 해외의 유명 전통공연예술 작품을 초청, 국제 규모의 축제로 개최함으로써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언론과 축제 관광객의 주목을 끌었다.

매년 번갈아 가며 탈춤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의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 집대성시켜 전통연희 축제로 특화시킨 전략이 축제 성공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탈놀이 경연대회, 창작탈 경연대회, 탈춤 배우기, 탈춤 그리기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의 확충과 함께, 관객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축제 놀이판에 끌어들이는 것도 관람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아직 실험적인 수준이지만 축제 전용공간의 확보와 입장료 징수를 통한 '관객 집중도 높이기'도 성공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영국 에덴버러 축제들의 성공사례

노는 공간활용 · 방문객 다각화 주효

축제를 문화관광상품화 시킨 성공적인 도시하면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덴버러를 자주 연상하게 된다. 한 도시에서 연중 20여개의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양적인 면에서도 놀랄만 하지만, 각 축제들이 국내의 외지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문화관광매력성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도 에덴버러 축제들의 질적인 면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에덴버러시가 축제를 성공시킨 저변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스코틀랜드 군악대축제 (Military Tattoo)라는 훌륭한 관광축제의 개발을 들 수 있다. 8개의 축제가 몰려있는 에덴버러의 절정이 '스코틀랜드 군악대축제'라고 해도 될 만큼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옛날 에덴버러성(城)에서 있었던 소재를 축제화해 에덴버러성 앞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스코틀랜드 특유의 백파이프 군악대, 전통 무용단이 화려한 이벤트를 펼칠 때면 마치 그 옛날의 역사적 사건들이 재현되는 듯한 감동을 받게된다. 이러한 이벤트 연출로 매년 15만명의 외국·국내 관광객들을 유인해 지역에 큰 관광과급효과를 미치는데, <표>에서 보듯이 9개 축제들의 전체경제효과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로 스코틀랜드 군악대축제, 프린지축제 등의 지역경제과급효과가 큰 축제들이 민간주도의 축제라는 점이다. 에덴버러 국

제축제처럼 관주도의 축제가 있지만 오히려 민주도의 축제들이 효과적인 축제경영과 관광상품화전략으로 전문성을 기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주도의 조직을 통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관광축제로서 재원조달을 효과적으로 해내야 하는 경영마인드의 실행, 관광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축제프로그램 개발 등의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벤트 장소의 한계성을 지혜롭게 극복했다는 점이다. 대규모 축제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 수백개의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짧은 축제기간동안 수행해 나가려면 이벤트 전용시설로는 역부족이며, 다수의 이벤트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벤트 장소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 에덴버러 프린지 축제의 경우 쓰이지 않는 도시 중심부의 식당건물, 선물집, 평일에 비어있는 교회건물,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이용하여 이벤트전용장소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없이 효과적으로 수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프린지축제는 시내 곳곳의 140여개의 행사장소에서 3주동안 1,000개의 행사(공연)를 개최해 50만의 관중동원을 이끌어내는 성공적 사례를 보였다.

넷째로 외국학자들이 강조하는 축제 문화관광자원화의 성패는 행사에 동원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Volunteer)에 달려 있다고 한다. 에덴버러의 성공적인 축제전



정 강 환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장

략의 원동력을 살펴보면 이벤트 프로그램 외에도 자발적 참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나라 축제 및 문화 이벤트를 통한 관광자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부족하거나, 관주도 성 행사로 인원동원관점에서 마지못해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벤트 조직자 측면에서는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거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측면에서는 참여의 즐거움과 이벤트 상품을 통해 얻는 관광수익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덴버러의 경우 자발적 참여자가 순수한 봉사동기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무형적·유형적으로 단기적·장기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에덴버러의 시민들도 막연하게 느꼈던 축제의 경제효과가 스코틀랜드 관광위원회에 의해 조사된 7천 2백만 파운드(864억원)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와 닿자 1993년 기존의 20여개나 되는 풍성한 축제에 '새해축제(Hogmanay Festival)'라는 새로운 축제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표〉 에덴버러 축제들의 경제효과

| | | |
|----------------------------|---------------|---------------|
| 에덴버러와 로시안 지역 | | |
| 소비지출액 : 4천 3백 90만 파운드 | | |
| 지역소득 : 9백 20만 파운드 | | |
| 고용 효과 : 1,319명 고용에 해당하는 효과 | | |
| 스코틀랜드 (에덴버러/로시안 지역포함) | | |
| 소비지출액 : 7천 2백만 파운드 | | |
| 고용 효과 : 3,034명 고용에 해당하는 효과 | | |
| 각 축제들의 소비지출액 | 에덴버러/로시안 | 스코틀랜드 |
| 프린지 축제 | 1천 36만 파운드 | 1천 1백 28만 파운드 |
| 국제 축제 | 6백 91만 파운드 | 7백 53만 파운드 |
| 군악대 축제 | 1천 9백 57만 파운드 | 4천 4백 25만 파운드 |
| 재즈 축제 | 1백 19만 파운드 | 1백 31만 파운드 |
| 영화 축제 | 45만 파운드 | 46만 파운드 |
| 민속 축제 | 18만 파운드 | 19만 파운드 |
| 과학 축제 | 69만 파운드 | 74만 파운드 |
| 책 축제 | 1백 84만 파운드 | 2백 41만 파운드 |
| 어린이 축제 | 1만 파운드 | 1만 파운드 |
| 2개 이상의 축제 방문객 | 2백 65만 파운드 | 3백 85만 파운드 |
| Total | 4천 3백 86만 파운드 | 7천 2백만 파운드 |

자료 : Scottish Tourist Board (1992)



끝으로 에덴버러 축제 전략의 성공은 방문객시장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에덴버러의 축제에서도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축제처럼 방문층이 노령화, 장년화되어 가면서 정체성(停滯性)이 나타나는데 대해 젊은층과 어린이층을 유도하기 위한 축제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에 신경을 써 학생층을 미래의 핵심방문객으로 유도하는 장기적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어린이축제, 과학축제 등 어린이층을 주 타겟으로 하는 축제들은 물론, 축제절정기인 8월에도 축제정보센터에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안내서에서 풍성한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가득한 것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최근 국내축제들도 많은 변화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 에덴버러 축제사례들을 통해 관(官)의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민(民)의 창의적 경영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

일본 도쿠가와 요시노부 전시관의 성공사례

드라마 소재 미리 알고 ‘연관성’ 홍보 서둘러

일 본에는 약 5만개의 지역이벤트가 연중 일본전국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것들은 역사와 전통위에 구축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계승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역사문화를 소재로한 특별이벤트가 이바라키현 미토시에서 개최되어 화제가 됐다. 이 사례와 유사한 국내 사례로는 작년부터 KBS-TV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촬영무대인 경북 문경시를 비교할 수 있는데, 배경드라마 효과로 작년 한해 33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약 600억원의 경제효과급효과가 있었지만 하드웨어를 중시한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소홀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드웨어 중심의 배경드라마 촬영장 유치로 관광객을 증가시킨 것은 일본에서 이미 70~80년대에 유행했던 사례였다. 그리고 드라마가 종료된 후의 후유증도 극심했다.

우리는 드라마 종료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본 사례에서 벤치마킹해 실질적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1998년 NHK 대하 드라마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방영이 시작되어 1월부터 이바라키현 미토시내에 개설된 ‘도쿠가와 요시노부 전시관’이 인기를 모았다.

행사장에는 요시노부 관련 건축물을 재현하고, 관내에는 음향과 영상으로 에도막부 말기라는 시대를 알기 쉽게 전시해 오픈한지 2개월도 안되어 20만명을 넘는 입장객

이 방문했다.

1997년 2월, 다음해에 방영될 NHK 대하 드라마가 미토시와 관련이 깊은 ‘도쿠가와 요시노부’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미토시청에서는 곧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이 방영을 기회로 지역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할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두 달 뒤인 4월에 시민 각계각층의 대표를 모아 실행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전시관의 건설활동을 추진했다.

사무국을 운영했던 시 관광과의 덴쇼 로 우니(田所良二)과장은 이렇게 말한다. “실행위원회는 시민 전체의 조직으로 1,400명이 참가했다. 위원 한 사람당 100장씩의 특제명함을 주어서 시와 현의 외부에 홍보활동을 부탁했다. 그리고 동시에 찰나미(干波)호반의 사유지에 전시관을 건설했으며, 사업비의 예산 조치 등을 진행했다”

덴쇼 씨의 말처럼, 행사장은 미토 시민의 휴식 장소인 찰나미 호수에 근접해 있어 요시노부의 아버지인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개설한 매화나무의 명소인 가이라쿠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로케이션 장소로도 적합했다.

교통도 편리해 JR 미토 역부터 걸어서 20분, 정기 버스와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불과 5분정도 소요됐다. 전시관 부지로 지정된 장소는 약 9,000㎡로 여기에 건평 2,260㎡의 건물균을 3억5,000만엔의 건설비를 들여서 건설했다. 이것 외에 운영비와 전시구역의 제작



이 각 규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장

이미 일본에서는 70~80년대 TV대하드라마를 활용한 지역관광 이벤트붐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국내 유행으로 KBS- TV대하 드라마 '왕건'의 촬영무대를 들 수 있다



비를 합한 총 사업비는 7억5,600만엔이었다. 이 사업비는 현과 시가 5,000만엔씩 내서 합했으며, 남은 부분은 입장 수입으로 대체했다.

“미토로 오는 관광객은 연간 약 250만 명으로 그 중에 가이라쿠엔에는 180만명 방문했다. 지금까지는 가이라쿠엔 의존형의 관광객 유치였다. 2월부터 3월에 걸친 가이라쿠엔의 매화나무 축제와 짜나미 호반의 4월 벚꽃, 도쿠가와 박물관, 번교홍도관(藩校弘道館)등 관광과 견학의 일체화가 가능한 조건이라서 관광 인프라의 순환과 상승 효과를 기본적인 전략으로 1999년 3월말부터 행사 기간 중에는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우에노에서 특급으로 한 시간이라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다.”(덴쇼 과장)

미토라고 하면 누구라도 떠올릴 수 있는 미토 고고쿠, 요시노부의 아버지인 도쿠가와 나리아키, 그리고 요시노부 세 사람은 미토의 3명군(三名君)으로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토의 역사적인 매력을 폭넓게 고지할 뿐 아니라 미토가 도쿠가와 성씨의 연고지라는 것을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구상했으며, 관광 코스도 정했다. 관광 코스는 도보, 도보+버스, 택시, 자가용 등으로 되어

있어 사적 이외에 현립 역사관, 현립 근대미술관, 미토 예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돌아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

1년3개월 간의 전시 기간 중 관광객의 분산을 위해 토요일과 축제일에는 미토 고고쿠, 도쿠가와 나리아키, 도쿠가와 요시노부로 분장한 3명의 행사요원이 장내를 다니며 입장객과 기념 촬영에 응했으며, 무사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문번이라고 불리던 분장사들도 배치해 서비스했다.

“전시관뿐만 아니라 매화축제, 꽃놀이 다음에는 여름의 짜나미호 불꽃놀이 대회, 작년부터 시작한 가을의 시대 축제, 겨울의 미토 예술관의 스타라이트 판타지 같은 연간 행사로 주변의 이벤트와 연계해 1일 평균 4,000명의 입장객이 방문한다면 100만 명 동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덴쇼 과장은 말한다.

역시 전국 네트워크로 오랜 역사가 있는 NHK 대하 드라마의 영향은 크다. 입장객의 주요 타겟이 비교적 고령인 50대이므로 위원회에서는 주변이벤트와 연계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9~10월

2001문화관광축제 정보

■ 금산인삼축제 (충남 금산) 9.14 ~ 9.23

- 주요행사 : 국제인삼교역전, 인삼캐기 체험, 금산인삼동 의보감, 약초썰기체험,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 금산인삼장사씨름대회 등
- 행사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인삼종합전시관, 인삼·약초거리
- 행사문의 : 충남 금산군청 문화공보관광과(041-750-2225)

■ 김제지평선축제 (전북 김제) 9.20 ~ 9.23

- 주요행사 : 외국인 농촌체험, 지평선 논길걷기, 때뚜기 잡기 체험, 지평선 연날리기, 쌀 음식 상차림 전시, 망둥어 낚시대회, 조개캐기대회 등
- 행사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벽골제 광장 일원
- 행사문의 : 전북 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063-540-3324)

■ 영동난계국악축제 (충북 영동) 9.22 ~ 9.25

- 주요행사 :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국악기 시연 체험, 난계 생애 무용극, 국악인 초청공연 등
- 행사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천 둔치, 난계국악기박물관 일원
- 행사문의 : 충북 영동군청 문화공보과(043-740-3225)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10.5 ~ 10.14

- 주요행사 : 국내외 탈춤경연, 안동민속축제, 한국인형극제, 탈춤따라배우기, 탈 만들기, 장승각기, 어린이 참여코너 등
- 행사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원(강변축제장, 하회마을 등)
- 행사문의 : 경북 안동시청 문화관광과(054-851-6393)

■ 양양송이축제 (강원 양양) 10.6 ~ 10.10

- 주요행사 : 송이채취현장체험, 송이동산견학, 송이농가 홈스테이, 송이돌이 만들기, 송이떡만들기,

양양송이 알아맞추기 등

- 행사장소 :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송이산지 일원
- 행사문의 : 강원도 양양군청 개발기획단(033-670-2239)

■ 수원화성문화제 (수원) 10.6 ~ 10.10

- 주요행사 :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용릉제향 재연, 정조시대 전통깃발전, 화성문화제 사진촬영대회, 수원갈비축제 등
- 행사장소 : 경기도 수원시 화성일원, 장안공원 등
- 행사문의 : 경기도 수원시청 문화관광과(031-228-3471)

■ 풍기인삼축제 (경북 영주) 10.6 ~ 10.10

- 주요행사 : 인삼캐기체험, 우량인삼 선발대회, 인삼축제 마당극, 한방무료진료, 인삼테마열차운행, 인삼요리 경연대회 등
- 행사장소 : 경상북도 풍기읍 일원
- 행사문의 : 경북 영주시청 문화관광과(054-639-6391)

■ 충주세계무술축제 (충북 충주) 10.9 ~ 10.15

- 주요행사 : 국내외 무술시연단 시연, 무술영화 상연, 기네스 체험, 농악놀이, 명장퍼레이드 등
- 행사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체육관, 수안보, 양성온천 등
- 행사문의 : 충북 충주시청 문화관광과(043-850-5165)

■ 통영나전칠기축제 (경남통영) 10.12~10.15

- 주요행사 : 통영나전칠기 역사 전시, 인간문화재 작품전, 나전칠기 제작과정 및 재료 전시, 통제영 12공방 설치 등
- 행사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관광지, 청마박물관
- 행사문의 : 경남 통영시청 문화관광과(055-640-5101)

■ 광주김치대축제 (광주) 10.17~10.21

- 주요행사 : 팔도김치·북한김치·계절김치·사찰김치·약용김치 등 전시, 김치의 역사·자료 등 전시, 김치 담그는 법 소개 등
- 행사장소 : 광주광역시 시립민속박물관 일원
- 행사문의 : 광주광역시청 관광과(062-606-3341)☎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www.knto.or.kr / korean / events)

秋 日 徵 吟

가을밤엔
낙엽에 불이 타오르는
山家에서
宴坐하며,
등불이나 돋우고,
古書를 읽는 것이 멋이네.

아니면 내 젊은 날
傷痕의 가슴을 앓았던
회상의 숲속을 거닐며,
질은 크레용으로
가을 悲感을
彩色해 보는 것도 좋을레라.

이맘때쯤 가을 풍속은
여름의 뜨거운 바다에서
바람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가을을 아는 사람들은
쓸쓸히 돌아서지 않는다.
회상의 강변에 죽음의
재를 뿌릴 뿐...

이 가을에 나는
만나는 자리에서
떠날 준비를 서두르지만,
내게서 떠난 사람들한테서
가을 葉信을 기다린다.



현재 강남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권용태 시인은 1937년 경남 김해에서 출생, 배재고·부산상고를 거쳐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58년 신춘문예(경향신문)와 문예지(자유문학)를 통해 시단에 등단하고 중앙문학상, 노산문학상, 녹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아침의 반가', '님풍에게', '북풍에게'가 있다.

‘야생차’ 가꾸고 ‘전통음식’ 지키는게 내 삶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8월의 가마솥 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17일. 나주문화원앞 망 하루 복원으로 인해 머잖아 새 원사를 찾아떠나야 할 판인 박준영 원장(61)이 복잡한 심경을 가라앉히고 사람이 들어온지도 모른채 김주영의 대하장편소설 ‘객주’로 찻권 31페이지를 막 넘기고 있었다.

“몇해전 읽었던 건데 잘 생각이 안나. 민초들이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새삼 궁금하고…. 그래서 한 질 사다 읽고 있어”

93년 나주시문화원과 금성군문화원이 통합되면서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박 원장은 한때 서울에서 조경업과 포장업에 종사하기도 했었다.

당시 그는 몸이 이상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다 후두암이란 청천벽력같은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발병 6개월째라 다행이었다. 이일로 고향에 내려와 요양을 하던 박 원장은 86년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아내마저 잃는다.

그 뒤로 박원장은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 둘을 고향으로 데리다 손수 키우며 남모르게 아침저녁으로 밥그릇에 눈물을 떨근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금성산 야생차 밭에 선 박준영 나주문화원장

이제 성년이 된 두 아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혼자서 살고 있는 박원장은 국내 8대 영산중의 하나인 금성산 되찾기 시민단체 연합회장으로 일하며 외로움을 잊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던 금성산에 다시 시민들이 오를 수 있는 것도 알고보면 국방부와 국회등지로 동분서주한 그의 발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터는 금성산 7만평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녹차를 가꾸느라 더욱 바쁘다. 올 상반기에는 나누는 물론이고 인근 광주·해남·목포등 전국 각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산을 뒹다시피했다.

상주인구가 8만도 못되는 나주의 현실을 감안해 수익모델로 만들기 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도록 무료개방하게 어필했다.

이일이 아니어도 박원장은 혼자서 금성산을 오르길 좋아한다. “생각도 많이 하고 지저분한 것 치울 수 있어 좋아”

박원장은 나라에서도 정령공이란 벼슬을 내릴만큼 신령한 산으로 여겨져 온 금성산에서 전국무속경연대회를 열고 중국에는 세계무속경연대회까지 개최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다.

박원장은 또 더 나이가 들기전에 노인당에 들어가 할일없이 노년을 보내는 이들과 함께 젊은 시절 조경하던 경력을 살려 도로화단 가꾸기도 벌여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박원장은 무엇보다 전통음식문화 지키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서·남해안 지역 수산물의 집하처였던 나주는 전주와 함께 ‘나주 아전이 제일 가시롭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고인돌 문화·옹관 문화·목문화로 대변되는 나주에 특산품인 배와 함께 전통음식문화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고 말하는 박원장은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영광·추라도 할 것 없이 시골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목·두부·젓

갈등 음식요리법을 배운다.

어머니가 잔칫집 음식을 총괄하는 대광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음식을 맛볼 기회가 많아 한번 보면 요리법을 다 외울 정도다. 박원장은 “우리의 전통음식요리법을 간직하고 있는 노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남에 따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내년이면 문화원장 임기가 끝나는 박원장은 야생차를 가꾸고 음식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생각인듯 보였다.

박원장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감명 깊게 읽었다는 수필 한토막을 들려줬다.

“일본에 검사와 대학교수 부부가 살았는데 이들 부부는 매일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먹고 각자 일터로 나갔다가 밤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부부생활도 안되고 삶에 대한 회의도 들었어. 그래서 이들 부부는 다른 직업을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모회사빌딩 지하에 6평짜리 오뎅초밥 식당을 열었는데 점점 음식 솜씨가 늘어나고 손님도 증가해 1년후엔 예전에 받던 검사·교수 수입보다 더 많이 벌게 됐지.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하루 24시간 함께 지낼 수 있어 더할나위없이 행복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며 박원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 체면을 중시여기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바람에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힘들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나는 문화원장 까지 했으니 이젠 풀빵장사도 해도 여한이 없어!” 그의 말이 소탈하게 들렸다. 



상주인구가 8만도 못되는 나주의 현실을 감안해 수익모델로 만들기 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도록 무료개방하게 어필했다.

이일이 아니어도 박원장은 혼자서 금성산을 오르길 좋아한다.

“생각도 많이 하고 지저분한 것 치울 수 있어 좋아”

박원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 체면을 중시여기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바람에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힘들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나는 문화원장 까지 했으니 이젠 풀빵장사도 해도 여한이 없어!”



웃은 시집을 때 처럼, 세계적 ‘한가위’ 처럼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보름날이다. 추석, 추석절, 중추, 중추절, 가윗날, 한가위 등으로 불린다. 한가위의 한은 ‘하다(크다·바르다)’는 뜻이고, 가위란 ‘가배(가운데란 뜻에서 나온 말)’를 의미하니 8월 중에서도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란 뜻이다. 한가위를 추석,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부른 것은 나중에 한자가 전래되고 한자 사용을 많이 하던 때, 중국 사람들이 쓰던 ‘중추’라는 말이나, ‘월석’이란 말들을 보고 그 말에서 따와 ‘추석(秋夕)’이라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일거리

추석을 맞으면 조상의 무덤에 가서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 주고 돌보는 벌초를 한다. 보통은 추석 전날이나 2~3일 전에 벌초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추석때 가서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하기도 한다. 벌초를 하는 것은 자손의 효성의 표시이고 도리다.

그리고 추석날 이른 아침에 종가에 모여 햇곡식으로 지은 밥과 술, 찬, 과일 등의 제사음식을 올려 4대조까지 추석 차례를 지낸다. 한 해에 거뒀던 것을 보이고 조상을 추모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윗 조상님들께는 10월에 묘에서 시제를 지낸다. 차례를 올린 뒤 산소에 가서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한다.

추석의 의미는 한 해 동안의 농사로 수확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님께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고, 달맞이를 하면서 여러 민속놀이를 즐기는데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조상의 얼과 문화를 계승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과 힘이 싹트게 될 것이라 본다.

먹거리

추석에는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술을 빚고 떡을 만들어 토란국에 오색과일을 마련한다. 떡은 갖가지 햇과일과 곡식으로 만드는 송편이 대표적이며, 추석 술은 백주라고 하는데, 역시 햅쌀로 빚었기 때문에 신도주라고도 한다.

술이 있으면 안주가 있는 법, 봄에 깬 병아리가 이맘때 쫓으면 알맞게 자라므로 황계라 하여 백주의 안주로 삼는다. 녹두나물과 토란국도 추석의 절식이다.

추석은 시기적으로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때라 우리 속담 중에 '일년 열두달 3백65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추석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몸도 마음도 기쁜 날이다. 이 날은 특히 여인네가 시집을 때처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낸다.

상차림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각 지방마다, 각 가정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남의 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는 속담이 나올 만도 하다. 보통의 경우 그림처럼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음식을 올린다. 

〈박후식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송편만들기

준비물 : 햅쌀, 소금, 쭈, 대추, 솔잎, 참기름, 쟁반.

송편소 : 팥콩, 소금, 깨, 녹두, 밤, 설탕, 계피가루 등.

준비하세요!

*햅쌀을 씻어 충분히 불린 다음, 물기를 빼고 소금을 넣어 반은 뺏고 나머지를 쭈를 넣어 곱게 간다. *대추는 물이 없어질 때까지 끓인 뒤, 체에 걸러 걸쭉한 대추고를 만든다. 첫 번째의 흰 쌀가루의 반은 끓는 물을 넣어 익반죽을 하고 나머지는 대추고를 넣어 반죽한다. *쭈를 넣은 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어 반죽한다. *팥콩은 깨끗이 씻어 소금을 뿌리고 깨는 곱게 빻아 꿀을 넣어 버무린다. *녹두는 따뜻한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긴 뒤 푹 찌서 소금을 넣고 찼어 체에 내린다. *냄비에 녹두 고물과 설탕을 넣고 약한 불에서 볶은 뒤 계피가루를 넣는다.

만들어 보세요!

① 각 반죽을 조금씩 떼어 구슬같이 만든다. ② 반죽을 손가락으로 눌러 움푹 들어가게 공간을 만들고 송편소를 넣고 속이 보이지 않게 빚는다. ③ 찹통에 솔잎을 깔고 송편을 넣은 다음 그 위에 솔잎, 송편 순으로 쪼켜로 놓고 찹통에서 30분쯤 쪄낸다. ④ 쪄낸 송편을 찬물에 헹궈 참기름을 바른다.

추석 관련 사이트

<http://user.zzagn.net/nmaster/sesi>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http://myhome.netsgo.com/nani77> 한국의 세시풍속

<http://uniweb.unitel.co.kr:8085/html/heritage> 한국의 명절

<http://myhome.shinbiro.com/~tran/index.htm> 우리나라의 명절과 절기

<http://www.koo.net/newmain/lecture/lecture6.htm> 추석에 대한 강의

<http://ktc.or.kr/~sang202/index.htm> 명절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

<http://members.tripod.lycos.co.kr/jokbo/charye.htm> 추석상차리기 페이지

<http://www.metro.seoul.kr/kor/seoulart/traditional> 추석소개

<http://jr.naver.com/Education/Society/Holidays/Chusok> 추석사이트 모음

<http://www.chosun.com/quiz/an91.html> 재미로 풀어보는 추석 퀴즈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709/199709140227.html>

세계의 추석

‘석전놀이’ 가공하면 세계적 매스게임

2002년 월드컵 행사는 35만명이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 문화, 풍경이 한달내내 세계적으로 방송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공업생산물조차 그 국가의 이미지가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임으로서 우리의 상품, 예술, 문화 등이 보다 고급품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지역의 이미지가 높아져야 그 지역의 공업제품, 문화상품, 축제, 문화적 이미지 등이 보다 고급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월드컵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전쟁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평상시보다 개최도시가 두 배로 늘어난 20개에 달하고 또한 두 국가끼리의 경쟁을 포함하는 것이라 더욱 치열한 문화전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세상사람들에게 한국이미지는 현재 일본과 중국의 아류, 그리고 서구의 모방으

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이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도 이제껏 몰랐던 거창한 문화가 숨겨져 있구나. 야,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다르구나. 서양과 너무 다른 심오한 뭔가가 있었구나.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면 성공한 것이다.

신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국월드컵 행사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위와 같은 말은 똑같이 전주에도 적용된다. 전주는 한국에서 보수적이고 정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이미지가 없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짜여져야 할 것이다.

관람객들은 즐겁게 관람하고 놀고 즐기고 보러 온 것이다. 또한 세계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으로 전주를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축제에 알맞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사기간 동안 도시가 유쾌하고 활력에 차 있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주에서 3 게임만 하지만 행사기간 동안 도시 모두가 축구축제와 문화축제로 가득차게 하는 것이 좋다. 경기가 없는 날에



이 정 덕
전북대 문화인류학 교수



도 관광객이 무엇인가를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놀이적인 것에서부터 무언가 심층적인 감흥을 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포괄되어야 한다.

서구적인 것 지양해야

문화행사에서 서구적인 것은 사양하는 것이 좋겠다. 서구적인 것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기도 어려울뿐더러 전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구적인 치어리더를 전주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 순간의 재미만 주고 전주 이미지를 각인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적이고 전주적인 것을 서구적인 수단을 동원해 포장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서구적인 것 자체를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계사람들이 서구적인 것을 한국에서 또는 전주에서 보고 싶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구적인 것은 참가국의 것을 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관광객에게 색다른 환상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 신비한 한국의 또는 전주의 문화이다. 전주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전통 문화들을 적절히 포장하여 문화행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사 하나 하나를

전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와 과연 전주이미지를 즐기는 기분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들은 문화행사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즉, 전주적 환상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참가국 것을 제외하고, 애시당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주적인 문화행사들

월드컵 개막식이나 폐막식 그리고 첫게임 전야제에 매스게임을 할 수 있다. 전주에서 찾아낼 수 있는 놀이를 살려 활발하고 유쾌한 게임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좋겠다. 옛날부터 전주천의 석전이 아주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주 근교에서는 마을끼리 싸우던 기잡놀이의 전통이 있었다. 이를 유쾌하고 활발한 게임으로 재창조하면 전주적인 특성을 각인시키고, 축구축제의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월달에 전주 시민이 두 팀으로 나누어 돌을 던지며 싸우는 석전놀이가 활발성과 진취성 그리고 한국적 색채의 측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전통놀이를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다. 보다 화려하고 활기차고 유쾌한 놀이로 포장해 외국인들도 즐기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게임 사이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사도 아주 한국적이고 전주적인 것으로 채워야 한다. 수많은 돈을 들여 한국에 오면 뭔가 색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어

●

관람객에게 색다른 환상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
신비한 한국의
또는 전주의 문화이다.
전주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전통문화들을 적절히 포장해
문화행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사 하나 하나를
전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와 과연 전주이미지를
즐기는 기본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거의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의 다양한
춤과 놀이를 찾아 게임 중간 중간에 치
어리더 대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화려하고 이국적이며 활달한 중간 문
화행사가 월드컵 게임자체를 환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줄 것이다.

월드컵 게임기간 동안 전주시내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스게임의 소규모로 시내에서 여러
번 시행해도 될 것이다. 전주에서 많은
축제가 행해져 이를 통해 많은 즐길거
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종이축제, 난장, 풍남제, 대사습놀
이, 가장행렬 등 기존의 축제를 활용하
고, 각종 공연단이나 시민들이 각종 공
연과 놀이를 시내 곳곳에서 할 수 있도
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국 문화 적절히 배치도 필요해

게임 사이사이의 행사나 전주의 문
화행사에서는 참가국의 관광객을 고려
하기 위해 참가국 문화를 살리는 문화
행사가 여기 저기에서 적절히 배치되
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국적인 한국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맛보면
서 즐겁게 놀 수 있게 하는 조화가 필
요하다.

이러한 조화를 위해서는 참가국에서
신나고 유쾌한 놀이나 문화행사를 유
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가령 참가국의 문화를 드러내는 가
장행렬, 공연, 댄스, 축제 등이 이루어
지면 한국사람과 참가국민이 같이 즐
길 수 있을 것이다.

숙박과 유흥의 장소에서도 전주적
색채를 살린 각종 즐길 거리들이 필요
하다. 한옥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 프
로그램도 준비되고 있다.

전주시내의 각종 행사가 숙박시설
그리고 유흥시설들과의 연계들이 필요
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팜플렛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배포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전주 전통문화특구의 여러
시설들도 활용될 것이다.

전주의 관광볼거리, 먹을거리 등은
아직까지 크게 인상적이지 못하다. 따

라서 주변의 한국적인 금산사, 국립전
주박물관, 종이박물관, 기타 소규모박
물관들에서 즐길 행사를 확대하고, 또
는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는 실상사나
화엄사 등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다. 전
주의 음식, 술, 문화상품 등도 문화행
사를 통해 이국적 분위기로 판다면 보
다 나올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월
드컵 분위기에 취해 즐거워하여야 손
님들인 방문객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주에서의 이국적이고
즐거운 기억이 그 사람이 전주를 기억
하고 또 다시 전주를 방문하고 아니면
친구나 가족들이 전주를 방문하게 하
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문**





‘고향의 봄’ 부르며 민족의 동질성 확인

연변=안진수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이해로 3회째를 맞는 민족전통음악제가 지난 8월 23일 중국 연길시 예술극장에서 한국의 지방문화원 관계자와 중국문화계인사·3성 동포 등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홍)가 중국 연변대예술학원·연변군중예술관 주관, (주)유한양행 후원아래 (사)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회장 조성일)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측에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지방문화원관계자·공연자 등 63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측에서 조성일

연변조선족 문화발전추진회장·김병민 연변대학 부총장·허광석 연길시 부시장·최호 연변일보사 부사장·리홍남 연변라디오방송국 국장·김대현 연변라디오방송국 부주필·안계린 연변음악가협회 부주석·리임원 연변작가협회 부주석·남상천 연변군중예술관 관장, 박세성 연변문련 부주석 등이 동석

●
 지난 99년부터 3년째 개최해
 오고 있는 민족 전통음악제의
 올해 행사에는 이수홍 회장을
 비롯한 전국 문화원 관계자가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요경창대회를
 연 것을 비롯 국내의 내로라하는
 성악가인 안형일 · 황영금 · 고선아씨
 등이 동행해 음악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란 취지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해 상황을 이뤘다.

올해 민족전통음악제 행사는 이수홍 회장을 비롯한 전국 문화원 관계자가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이 참가한 가운데 민요경창대회를 연 것을 비롯 국내의 내로라하는 성악가인 안형일 · 황영금 · 고선아씨 등이 동행해 음악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란 취지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음악부에 재학중인 변형화씨가 전 문부 명창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최려령씨(연변대학예술학원 음악부 학생), 우수상은 김선희(연변대학예술학원 음악부 학생) · 강혜정(연변가무단 가수)씨가 각각 받았다.

또 사회부 대상은 황영애(연변군중예술관 가수)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김용선(연길시 장식회사 가수) · 럽계화(연변이동통신분공사 가수)씨가 받았다.

우수상은 이계화(룡정시예술중심 가수) · 문철범(룡정시 개산툰 가수) · 리화련(흑룡강성목단강시예술단 가수) · 박범현(도문시제2소학 가수) · 신정애(연길시 신흥가 가수) · 김춘희(도문시 신흥가 가수) · 서화(화룡시 제5중학 가수)씨가 수상했다.

지난해에 비해 훨씬

높은 기량을 선보인 수상자들의 공연이 끝난 후 중국측과 한국측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중국측에서는 연변가수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김광민씨의 '어머니' · '고향의 노래'에 이어 윤행성씨가 '눈이 내리네' · '신사동 그 사람'을 불렀다. 또 한국측에서는 황영금씨가 '진달래꽃' · '산촌'을 열창한데 이어 안형일씨가 양중해 제주문화원장의 작사곡으로 유명한 '떠나가는 배'와 '박연폭포', 그리고 황영금 · 안형일씨가 '선구자'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고선아 동작문화원 예술단장(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인 태평무 이수자)이 이끄는 무용단들이 무대에 올라와 뛰어난 발짓춤의 기교로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이 지닌 태평무와 한국 무용의 흥과 멋 · 태를 표현하는 춤인 이조여인상을 선보이며 드넓은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고향의 봄'을 노래하며 민족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통일을 기약했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대회가 끝난 뒷날부터 두개의 팀(1팀은 연길 · 백두산을 답사했고 2팀은 연길 · 집안 · 장춘지역을 둘러봤다)으로 나뉘 중국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8월 26일과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참가자 명단〉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연만희 동작문화원장, 김병학 김계문화원장, 이인호 익산문화원장, 임난곤 정읍문화원장, 이영철 도봉문화원장, 안상규 함안문화원장, 고만호 마포사무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문화원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국장, 김계담 서귀포문화원장, 노상준 남원문화원장, 류해상 대덕문화원장, 이은구 이천문화원장, 이종상 마포문화원장, 김상수 함양문화원장, 김경대 동작문화원 부원장, 윤탤훈 함안문화원 부원장, 조호영 금정문화원 부원장, 황영금·안형일·이소영·김순자(문화예술인), 이윤선 동작문화원 사무국장, 백순미 동작문화원 이사, 김정희 동작문화원 이사, 고남순 동작문화원 이사, 박영희 동작문화원 자문위원, 김진선 동작문화원 운영위원, 최옥희 동작문화원 운영위원, 지윤임 동작문화원 운영위원, 박금찬 동작문화원 운영위원, 정경자 동작문화원 자문위원, 남영숙 동작문화원 자문위원, 김귀연 동작문화원 자문위원, 박란희 동작문화원 자문위원, 황숙자 동작문화원 자문위원, 박순례 동작문화원 운영위원, 하용순 동작문화원 운영위원,

송영은 동작문화원 회원, 심문자 동작문화원 회원, 전기모 도봉문화원 분과위원, 안선옥 도봉문화원 분과위원, 조훈래 함안문화원 회원, 강도구 함안문화원 회원, 오영자 서귀포문화원 회원, 김영선 서귀포문화원 회원, 오태식 서귀포문화원 대의원, 김병수 서귀포문화원 대의원, 김무석 서귀포문화원 회원, 박수남 서귀포문화원 회원, 유지혜 서귀포문화원 회원, 진기명 동

작문화원 이사, 배신자 남원문화원 회원, 최경한 마포문화원 과장, 최영대 도봉문화원 이사, 신현완 도봉문화원 회원, 송형호 도봉문화원 회원, 이세기 도봉문화원 회원, 김용선 동봉문화원 회원, 이연기 도봉문화원 회원, 최영근 도봉문화원 과장, 박경숙 함양문화원 부장, 안진수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장상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총무부장 등 63명.<무순> ㉞

‘天運’ 처럼 백두산 천지 펼쳐져 환호

연길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주도(州都)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조선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해 개척한 곳으로 ‘북간도’로 불린 곳이다. 이곳에 있는 연길은 면적이 390km², 인구 약 25만 8천명이다. 주민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다. 중국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이며, 주변 농업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산지다.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은 해발 2744m로 천운이 아니면 맑은 천지를 바라볼 수 없다고 할만큼 일기변화가 잦다. 이번 한국쪽 답사자들은 모처럼 백두산 천지를 바라볼 수 있는 행운을 안았다. 고구려 425년간의 옛 도읍지 집안은 본래 국내성으로 불린 지역으로 고구려의 수도였다. 집안시내로 들어가면 넓고 초라한 모습의 집안박물관이 나온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광개토왕대비의 탁본을 비롯해 모조품이긴 하지만 고구려의 벽화가 가득해 보는 이를 감탄케 한다. 집안박물관을 나와 장수왕릉으로 향하는 길주위에는 광개토대왕릉 광개토대왕비 국내성·성터 등 고구려의 무덤 1,100여개가 보인다. 아울러 집안과 경계하고 있는 압록강과 건너편 북한의 만포진도 지척 간에 있다. 중국 길림성 성도인 장춘은 인구 약 2백만명으로 행정·경제·교통·문화의 중심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인 지난 56년에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 공장이 세워졌고 기계·화학·전기·유리·식품가공등의 공업도 일어났다. 특산물로는 인삼·녹용·담비가죽등 이 있다.



명창상을 수상한 연변의 변영화씨(위)와 합창을 하고 있는 공연자들(가운데), 집안 장수왕릉 앞의 문화원 관계자들(아래)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전 통문화상품업체 동안방(東岸房)을 운영하고 있는 김월선씨(46). 서울 인사동에서 그녀를 만났다. 독신인 김씨는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이었다. 그리 높낮이가 없이 말하는 품이 바늘질이나 할 전형적인 여성 같아보였는데 알고 보니 중고등학교때 잘나가는 국가 청소년 투창대표로 '팔뚝 굵은' 여성이었다.

우연히 국제복장학원에서 스타일 공부를 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이후로 금속공예와 섬유제품을 만들어오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이곳에 단독 매장을 갖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가까이에 있는 아리랑 명품관으로 매장을 옮겼다"며 길을 안내했다.

매장안에는 부부 도자기 작가인 차화숙·김광면씨의 청자를 비롯 판화가 이철수씨, 장승조각가 채용병씨, 누비용품 제작자 강들자씨의 작품들이 널려 있다.

한쪽에 걸려있는 앙증맞은 한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인형에나 입힐만한 사이즈의 한복에 8종의 한약재를 넣어 만든 것. 무슨 한약재인지는 1급 비밀이란다. 하나만 말해달라고 졸랐더니 "그중 가장 싼 한약재로 정향이 들어있다"고 귀뺨한다.

김씨가 동안방의 문을 열면서 내놓은 향낭은 현재 전체 매출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품목이다.

우리 한복의 둥그스름한 선과 아름다운 색상을

아름다움과 실용성 추구하는 김월선 東岸房 대표

"한복에다 한약재 넣은 '향낭' 잘나가요"

그대로 살리면서 동시에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아로마테라피적 기능을 더했다.

“무엇보다 공예품은 미와 실용성을 함께 갖춰야 해요” 김씨는 “우리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데만 그칠 게 아니라 더 널리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처음 향낭을 만들때 모시와 한방재의 조화를 꾀했다. 하지만 모시를 다루기가 까다로와 한복안감중 제일 싼 재료인 ‘노방’을 쓰고 있다. 밖에서 향낭을 보면 한복속으로 방향제가 비치는 것은 물론이고 앞뒤의 천이 겹쳐지면서 아롱아롱한 한복 특유의 시각적 효과가 난다.

김씨는 사계절마다 향낭의 색상을 바꾼다. 여름엔 밝고 환하게, 겨울엔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녀는 “이것을 본 일본사람들이 까무라칠 정도로 좋아한다”고 말한다.

특히, 향낭은 2년이상 향이 지속되어 한번 걸어두면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꿀초의 경우 담배냄새를 없애는데 좋고 운전자들은 자동차 안에 걸어놓으면 오랫동안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전통문화상품과 달리 향낭은 잘 팔리는 눈치다. 사업초기 한 달 50장에 불과하던 향낭의 판매량이 이제는 1천5백장에 이른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격에 따라 향낭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진다. 이른바 ‘맞춤디자인’ 방식이다.

상품기획과 재단을 동안방에서 한다 음 외부 업체에 봉제를 맡기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제품을 동안방이 다시 철

저하게 검품해 남대문과 면세점·덕수궁·한국아트체인·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등지로 내보낸다.

이미 향낭이 의장등록을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색깔과 모양이 똑같은 향낭들이 난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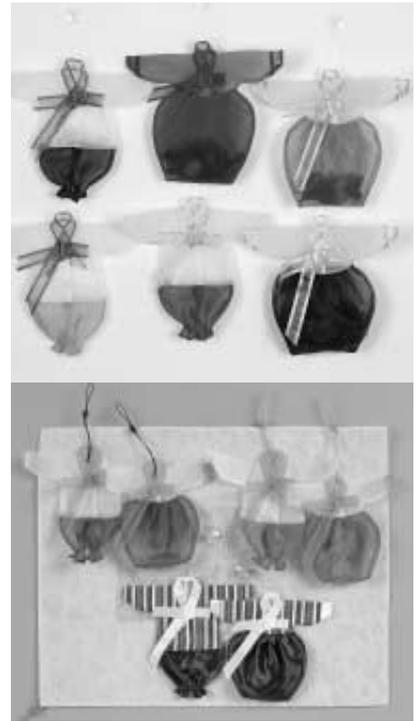
“복제품을 만들더라도 새로운 형태로 바꾸면 좋을텐데 그렇지도 않아 기존에 새로운 상품을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운만 빠지게 하고 있어요”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따끔하게 말하는 그녀는 “앞으로 국제특허까지 획득해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일본 기모노에도 향을 넣어 역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 놓고는 “문화상품 전략을 털어놓고 말았다”며 “그건 비밀이니 쓰지 말아달라”며 웃는다. 마흔 여섯 노처녀의 웃음이 티없이 맑았다. **문**



△한복형태의 향낭
 <감꽃형태의 보자기

어떻게 향낭을 만들게 됐나?

경북 김천 출신인 그녀는 완구 샘플사를 5년동안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미국의 테디베어사에 납품할 만큼 전도가 밝았으나 끝내 정글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말았다. 만사를 다 제쳐두고 벗따라 대둔산 아래 사찰에서 백일동안 기거하며 하루에 네번 예불을 올렸다. 어느날 예불을 마치고 녹초가 된 두다리를 벽에 대고 있었는데 그 빈벽에 덩그러니 하나 걸려 있었던 판화가 이철수씨의 작품 한 점이 그녀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빨래줄에 한복바지가 걸려 있는 장면이었다. “한복에서 향내가 나는듯 했어요” 한복에 향을 넣은 ‘향낭’을 착안하게 그때다.

보성군 감동마을 당산제

● 감동마을에는
 옛부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농악놀이
 등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많은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떠나게 되어
 전래의 민속을 이어갈 사람이
 줄고 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노 등면 학동리 감동마을은 군소재지에서 북으로 13.1km(면소재지에서 5.1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자봉(해발 523m)을 정점으로 북으로는 화순군 이양면, 동으로는 보성군 북대면과 미력면, 남으로는 보성군 보성읍과 인접해 있다.

천지봉에서 발원하는 맑은 감동천은 마을의 중심을 흘러 보성강 상류로 합류한다.

이 감동마을에는 옛부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 농악놀이 등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많은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떠나게 되어 전래의 민속을 이어갈 사람이 줄고 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감동마을은 130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이 번창했을 때는 3,000호가 살았다고 하며 농경지가 적어 마을 사람들은 이웃 북대면, 미력면, 득광면, 화순 도림, 장흥 장평 등에 나가서까지 전답을 경작하는 세력에 매우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질서가 엄격해서 “죽병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불경스런 행동을 꾸짖는 얘기가 전해오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은 깊숙한 산골짜기에 있어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은 마

음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쩌다 하천을 따라 올라온 사람들만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외지인의 왕래가 적은 이 마을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을 반겨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산제와 관련이 깊은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날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던 중 이곳 깊은 계곡에 큰 마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감동마을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시주를 받아가지고 나오던 스님은 불량배를 만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

그는 마을에 불량배가 있는 것은 이곳의 지세가 드세어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마을 앞 죽순바위로 마을사람들을 불러모았다.

“바로 이 죽순바위 때문에 사람들의 성정이 거칠어지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바위만 부숴버리면 이 마을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스님은 유유히 마을을 떠났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지나친 욕심에 눈이 가려 모두 몰려나와서 죽순바위를 부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밑둥이 부숴질 때 선혈이 낭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의 말에 속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위 깨기를 중단했으나 이미 부숴버린 바위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 후 마을 앞산이 밀고 들어와 마을 입구가 더욱 좁혀지고 사람들이 죽어 갔다. 마을사람들은 “살 곳이 못된다”며 모두 떠나버렸고 그곳은 폐촌이 되었다.(이 마을은 죽뱅이 골(竹峯)이기에 ‘죽순바위’라고도 하고 배(舟)형국이라서 ‘돛대바위’라고도 했다는 전설을 들어보면 돛대없는 배가 되었으니 마을이 폐촌이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래도 폐촌에 남아 살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신을 모셔야 신의 수호를 받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 마을 당제와 죽순바위 주변에 용왕제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 날 누시에… 메만은 뚝배기로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 날 다른 마을 당제와 달리 밤이 아닌 오시(午時)에 모신다.

그리고 이 마을은 매년 10월(상달)그믐에 동회를 치르게 되는데 동회에서는 동사의 결산과 당산제 행사준비 계획을 토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당제의 제수는 언제부터 마련해 오지는 알 수 없고 동답 2단보가 있었으나 현재는 하천 유실로 1단보 정도가 동답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동회 경비와 당제 제수는 동답의 소출에서 충당한다고 한다.

당제의 신체는 원래 마을 중심부에

있었던 수백 년 된 당산나무였으나 철로 개통에 의해 멸실되고 아랫 당산인 현 위치 당산이 신체로 모셔지고 있으며 용왕은 죽순 바위가 있었던 하천변 너덜 바위를 신체로 모시고 있다.

해마다 정월 초닷세 날에 새해 동회에서 화주(化主·당주) 1인, 집사 2인, 축관 1인의 제관을 선정하는데 화주를 비롯한 제관들은

첫째 상복, 결혼, 출산 중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

둘째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고 자손이 번창하고 참신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당제 3일 전부터 잡귀신의 근접을 막기 위해 화주집과 당제우물(샘), 제당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달아 놓고 그 날부터 화주 이외의 출입을 금하고 우물가나 하천가에 가서 세탁을 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화주는 홀로 시장에 나가서 생선, 포, 나물 등을 구입해 들어와 홀로 메와 국, 백설기떡, 생선탕, 포, 나물, 술, 돼지머리를 익혀 제수를 마련하고 축원할 때 올리는 소지를 제관 수대로만 들어 둔다.

농악대는 오전부터 화주집에 문굿을 치며 들어가서 마등굿만 치고 제관이 당산으로 나가면 농악은 뒤따라 가면서 샘굿을 치고난 뒤 길굿을 치면서 당산에 나가 금줄 밖에서 제례에 참배한다. 참신제에 농악을 울리며 재배하고 독축 후에 농악을 울리며 합동 참배한다.

당제는 정월 열나흘날 오시에 먼저 상당인 당산할머니에게 재물을 진설하



폐촌에 남아 살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신을 모셔야 신의 수호를 받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 마을 당제와 죽순바위 주변에 용왕제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당제의 신체는

원래 마을 중심부에 있었던 수백년 된 당산나무였으나 철로 개통에 의해 멸실되고 아랫 당산인 현 위치 당산이 신체로 모셔지고 있으며 용왕은 죽순 바위가 있었던 하천변 너덜 바위를 신체로 모시고 있다.



● 이 마을 당제도

어느 마을과 같이 노령화되어 당제를 꺾향해오다가 전통민속이 사라져감을 안타깝게 여겨온 마을 어른들의 노력으로 몇 해 전부터 복설해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다.

전설과 당제가 기나긴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갑동마을의 당산제는 어느 마을의 도제보다 그 보존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화 행정당국의 전통보존 대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존이 이루어졌으면...

는데 메만은 뚝배기에 담아 올리고 진설을 마치면 제례는 시향과 유사한 유교식으로 치러지며 사신 절차에는 전제관이 함께 마을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비는 소지를 올리고 헌식은 당산 옆 무덤같은 곳에 헌식하고 미리 파다놓은 흙을 덮는다. 다음은 1km 떨어진 마을 어귀에 자리한 곳에 화주이하 제관이 모두 나가서 용왕제를 올린다. 메는 상당과 같이 뚝배기에 담아 올리며 제례절차는 당산제와 같고 다만 소지를 올리지 않고 헌식을 하는데 짚꾸러미에 메와 각 음식을 조금씩 떼가지고 헌관이 냇물에 던져 헌식한다.

죽순바위가 부숩질때 흘러나온 선혈이 호랑이로 회신

이때 농악은 축귀한다는 뜻으로 자진가락으로 몰아치던 중 “호랑이 온다”는 소리가 울리면 벼락긋을 치면서 농악단과 제관들은 기겁하며 뒤돌아 보지 않고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때 “호랑이 온다”는 소리는 죽순바위가 부숩질때 흘러나온 선혈이 호랑이로 회신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과 아랫마을이 호미(虎尾) 마을이기에 호랑이 머리 앞에서 제를 올려서 헌식을 먹으러 온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용왕제를 마치고 돌아온 농악대는 화주집을 선두로 마을 집집마다 지신밟기 농악을 치는데 영등달 초하루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농악단 참여인원이 적어 2~3일 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 마련의 경우에는 한 집도 빠짐없이 지신

밟기가 이루어지는데 쌀과 돈을 받아 환산하면 약 쌀 세가마 정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 마을 당제도 어느 마을과 같이 노령화되어 당제를 꺾향해오다가 전통민속이 사라져감을 안타깝게 여겨온 마을 어른들의 노력으로 몇 해 전부터 복설해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다.

마을 당제의 영험을 들어보면 약10년 전에 당제를 부실하게 올린 탓으로 부정을 타 당산에서 비를 피하던 세 사람과 소 한 마리가 벼락을 맞아 소와 그 중 두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전설과 당제가 기나긴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갑동마을의 당산제는 어느 마을의 도제보다 그 보존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화 행정당국의 전통보존 대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존이 이루어졌으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문**

자료제공 : 보성문화원

정리 : 류장수 前 월간 '우리문화' 편집주간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박계현 기자 fire@kccf.or.kr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동안 경상남도를 방문해 현지 문화예술관계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경상남도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 행사는 남명 조식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선비문화축제' 행사와 병행해 성황리에 치뤄졌다.

지난 7월 제주도에 이어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삼성연수소에서 열린 이번 경남행사는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을 비롯 문화관광부 관계자, 도문예진흥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17개 시군 문화예술관계자들이 나와 주제발표했다.

현장대회에서 도내 각 시군 전문가들은 내 고장의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자리로 폭넓은 발전방안모색과 지방 자치단체 정책 입안자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제고 및 특성있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첫날 주제발표는 안진수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토론은 창원시 등 9개 시군 주제발표자가 지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문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내용으로 발표해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 등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박현호 창원문화원장은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가족 양성'이라는 주제아래 "주민의 관심이 없는 지역에서는 문화의 활성화

'예산' 없으면 '예술' 불가능

산청서 '경상남도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 토론 벌여



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지역민의 문화 의식과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연규 마산예총 사무국장은 ‘지역 문화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올바른 지역문화의 실체는 민의 문화”라며 창원과 마산지역 문화현실을 되짚어 보고 그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장일영 진주문화예술단 이사는 ‘진주 남강 국제등축제’를 소개하면서 “진주남강 국제 등축제를 세계남강유 등축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박차생 진해문화원장은 ‘연도여 자상여소리’라는 주제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의 분출과 다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송량 사천문인협회 부회장은 ‘사천시 지역문화의 해 문화운동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사천시의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의 날 지정 운영, 문호개방, 재정지원책확대, 전승·

보급과 복원화 사업, 사천예술촌 육성, 와룡문화제, 박재삼 시인의 문학기념 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고희 연극협회 김해지부장은 ‘김해문화의 현안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수로왕 탄강으로 시작되어 500여 년간 번성기를 누려왔던 가야문화를 복원해 가야고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수준 높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은 민족의 정체성회복과 함께 김해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손정태 밀양문화원 이사는 ‘밀양문화제를 통해 살펴본 지역축제의 현안과 대안’이란 주제로 “44년의 전통을 이어온 전국향토 축제의 효시 격인 ‘밀양문화제’와 ‘밀양아리랑’의 명성처럼 영원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기억되는 지역축제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심상도 양산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양산지역의 고유문화와 축제의 개최’라는 주제아래 양산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지역축제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서 “관광상품화와 대규모 관광객 유치 등 마케팅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이광두씨는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아래 오늘날 지역축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꼬집어 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와 자연, 그리고 환경과 경제가 어울려 지역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21세기 친환경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함평의 나비 축제와 무주의 반딧불 축제를 세계적

인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다른 변화를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날인 17일 오전 9시부터는 김석만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의 사회로 함암문화원 조훈재씨가 첫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단체를 육성하자’는 주제아래 “군·소도시민들은 대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정구 창녕문화원장은 ‘문화유적과 문화관광의 현실’이라는 주제아래 “동서양이 하나로 세계화되어 가는 추세에 부응해 풍부한 문화유적을 활용해 관광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고 선조들의 사상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환경문제와 경제생활과 조화시켜 생활의 질을 높여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성오광대보존회 황종욱 총무는 ‘지역문화의 꽃 지역축제의 현안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지역문화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보를 통해 문화대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원동 하동문화원 운영위원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아래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는 축제기획으로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손성모 산청군 문예진흥위원은 ‘향토문화의 특성을 살리자’라는 주제

역사 박물관이라 불릴만큼 문화유산이 많은 경남지역은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한 그 차별성을 살려나가기 위해 지역 축제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하고 있다.

로 “지금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때”라며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예산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조사·발굴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김상수 함양화문원장은 ‘사회에 묻힌 사문의 행적’이라는 주제로 “아무리 빛나는 조상과 문화유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고 사장시켜 둔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기억들은 오늘날 우리의 윤리관에 정신적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기용 진주교대교수는 ‘동계 정온과 거창의 남명학맥’이라는 주제로 “그 정신적 가르침을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심어주어야 한다”며 교재 개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늘 접하는 컴퓨터,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우리 선조들의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철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조사 위원은 “합천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이라는 주제아래 문화재의 보고인 지역적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 대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발표회를 가지면서 역사박물관이라 불릴만큼 문화유산이 많은 경남이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차별성을 살려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예산 담보 없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예술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 행정지원의 소극성,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기획의 부재, 고유성의 변질된 행사 등으로 지역특유의 역사적 성격이나 관광자원을 확보해 나가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래도 대도시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문화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축제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하자”며 입을 모았다.

행사참가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어 17일 오후부터는 성철스님 생가인 겹외사와 문익점 목화시배지 등지를 돌며 지역문화현장을 탐방한 후 선비문화축제에도 참석했다.☞



경상남도내 시·군 문화예술관계자들이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주제발표 후 행사참가자들 모두가 뿌듯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에 임했다.



경남의 특산문화상품 판매장이 각지에서 모인 인파로 붐비고 있다.



남명제를 올리는 유생들의 마음은 경건하기만 하다.



남명 조식선생 탄신 5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 합천군·진주시 등 지방 자치단체와 남명학 연구원 등 관련학술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

남명 조식선생은 합천의 삼가에서 탄생한 조선중기의 성리학자로 실천유학을 역설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평생 산림에 은거하며 성리학을 연구해 경(敬)과 의(義)로 집약되는 독특한 학문을 이룩해 사림의 종사로 추앙받았다. 선생은 평생동안 일체의 벼슬을 마다하고 산림처사로 지내며 민본주의 정치사상에 바탕해 잘못된 국정을 과감히 비판하고, 절실명쾌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림의 언로를 열었다.

또한 학문 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해 실학의 비자로 꼽히는 인물로 임진왜란 때 국난을 극복한 의병장과 정치·학술계를 주도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사에 있어 가장 성공한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는 큰 선비다.

경상남도과 조식선생관련단체·유림대표·지역언론인들은 올해초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사업회'를 발족하고, 국제학술회의와 서사극공연, 전통유림행사재현, 사적지복원, 관련도서발간 등 30여건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남명선생의 선비정신과 실학적인 면을 되살려 오늘날 실추되어가는 도덕성을 개선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21세기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국민정신사조를 창출함을 그 목적으로 했다. 또한 국난극복에 기여한 제자 의병장들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절의정신을 드높이고 민족정기를 되살리자는 뜻도 있다.

‘남명’은 21세기 정신적 지주

조식선생 탄신 5백주년 기념 ‘선비문화축제’

조 전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남명(南冥) 조식(曹植·1501~1572)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선비문화축제’ 행사가 지난 8월 19일 까지 선생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 행사는 조선 유학의 양대산맥이면서 퇴계에 비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남명 조식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재조명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정신적 지표로 삼기 위해 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기해 경남도와 산청군

컨설팅 - 영주

지역문화 일구는 시민들의 모임 영주문화연구회

김 두 진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팀장

부석사와 정도전의 고향

영주시는 오늘날의 직할시격인 순흥도호부가 조선시대 후기까지 있었던 큰 고을이다.

이곳은 부석사 무량수전·희방사 등 유서깊은 불교문화의 고장이며, 조선 초 국가의 기틀을 세운 정도전이 태어난 곳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항한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이 있었으며, 최초의 서원인 주세붕의 소수서원이 세워진 선비의 고향이기도 하다.

영주시는 과거 경북 북부지역의 재화가 집산하는 곳으로 기차교통의 요지였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예전만 같지 못하고, 고속도로는 내년이나 연결 된다고 한다. 반면 생활이나 문화의 중심지는 안동이 부상하고 있어 영주는 지역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산물로는 풍기의 인삼과 영주의 사과가 유명하고, 축제는 풍기인삼축제, 작년부터 시작한 <아! 순흥> 등의 행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올 10월 중순에는 전국민속예술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 고향과 연을 맺고 있는 문화인물들로 의상대사, 안향, 주세붕, 하륜, 정도전 등. 현대 인물로는 연극연출가 손진책, 이두식 화백, 소설가 송지영씨가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11년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연구회 결성

영주문화연구회는 영주지역 교사들과 젊은 시절 아마추어 문예활동을 하던 지역주민들이 모여 1990년 10월에 구성된 단체이다. 현재 회원수 40여 명이고, 이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다.

영주문화연구회의 기획행사 중 특히 출향인사들과 연계, 그들에게 잡지를 배포하여 고향과의 유대감을 이어가도록 하는 발상이 돋보인다. 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 기획이 끊이지 않아 점차 호응도 커져가고 있으며, 지역언론 등에서도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모임의 대표인 배용호 회장은 봉화여중 교사로 학생들에게 각종 마을신문을 만들도록 하여 SBS 교육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덕우 편집국장이나 그의 회원들도 각종 상을 많이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상자는 상금 전액을 회에 기부하는 전통까지 만들었으니, 이는 지역의 문화사업을 위한 여건이 그만큼 힘들고도 각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입시 문제로 취미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더



욱이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주문화연구회의 회원들이 청소년시절부터 이 지역에서 미술, 문학 등 각종 문화활동을 하며 유대감을 길러 왔지만, 장차 이 지역문화계를 이끌 청년문화운동가들이 배출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물론 이 문제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대중문화산업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세계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로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은 지역간 문화교류에 힘써야 할 때

영주문화연구회에서는 계간으로 <영주문화>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통권 26호가 발간되었으며, 매호



3,000부 이상을 발간하고 있다니 어려운 가운데 괄목할 성장을 해온 셈이다. <영주문화>를 포함하여 지방의 소규모 문화관련 책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확보와 양질의 필자들을 섭외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국 각 대학의 문화 및 예술 관련 학과들이 현장실습을 영주로 오도록 유도하는 서신을 보내는 방법이 좋겠다. 재정적 부담도 없고, 대단한 수고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 자연스럽게 외부 교수 및 장래의 연구자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교류를 시작할 수 있고, 둘째, 이들이 영주문화를 연구한 결과는 그대로 영주의 자산이 되며, 셋째, 그들로 인한

관광수입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그만 학술조사팀이나 현장실습팀과 교류하여 시민들의 관광마인드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큰 행사들을 치러낼 능력과 성숙한 시민 자세도 가꿔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 수준에서 가능한 문화DB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만이 내세울 수 있는 DB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작더라도 가능한 것,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가능한 것부터 진행시켜야 한다.

가령 지역문화예술인과 향토사가의 명단과 연락처, 그들의 전문분야 등에 관한 기사를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 각자의 수첩에 적힌 명단과 전화번호를 꺼내 놓기만 해도 지역문화 활동가들의 인물DB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마지막 발간되는 책자에는 다음해의 문화행사 일정표를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는 기사가 실려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돼있어도 1년 동안 책을 꾸준히 찾게 되고 두고두고 들춰보게 될 것이다.

영주문화연구회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다. 사춘기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립을 꿈꾸는 시기이다.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넘치는 생명력을 분출하고자 하는 시기이다. 비단 영주문화연구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만든 전국의 수많은 문화단체가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겪게 될 것이다. 개인이 사춘기를 잘 거쳐야 바른 인품과 미래를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듯이 이들 단체들도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

울릉

컨설팅 결과로 울릉도 오징어축제 개최

두드락 공연과 함께 신나는 볼거리 제공

울릉군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후원으로 8월 4~6일까지 제 1회 울릉도 오징어축제를 열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추진위가 앞서 6월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지원한 바 있는 울릉군 지역문화 관련 종합컨설팅 당시 컨설턴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축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징어잡이 배 해상 퍼레이드, 체험출어, 오징어요

리 경연, 오징어마라톤대회 등이었다. 무엇보다 군민들과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낸 것은 8월 4일 저녁 열린 찾아가는 문화활동 특별공연과 한맥우리소리연구소의 국악 특별 초청공연이었다.

공연의 말미를 장식한 두드락공연단의 환상적인 몸짓과 연주는 문화향수 기회가 많지 않았던 동해상의 고도에 문화예술의 단비가 되었고, 군민들의 열광은 이같은 행사가 자주 열려기를 원하는 바람이었다. **■**



원주

삶과 예술 · 자연이 하나된 ‘진밭마을’

원주시 문막읍 취병2리의 진밭마을에 새로운 공동체 문화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 ‘숲과 마을’ 미술축전위원회와 진밭마을문화진흥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실상 ‘문화공동체만들기 운동’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듯싶다.

건강 문제로 이곳에 9년 전에 들어와서 정착한 김봉준씨는 80년대 대학가를 풍미했던 걸개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이다. 그는 진밭마을을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예술인촌으로 가꾸고, 한편으로는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동경하는 모든 이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삶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이 축전을 기획하였다.

김 화백은 마을주민들의 이해를 끌어내고, 마을 전체를 미술작품과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으로 만들어 지난 해 첫 축전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도 역시 마을 곳곳을 작품으로 꾸며 놓았고, 민박집을 운영하며 ‘옛책고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의 창고를 고쳐 고서 전시장으로 쓰는 등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것들이 전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마을가꾸기 정도로 비쳐지는 것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꾸며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마

을주민측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임수경씨는 “마을 앞까



김봉준화백

지 이르는 도로가 비포장이지만 그곳에 자갈을 깔아 받듯하게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연을 생각해 일부러 꾸미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조화로움’이야말로 ‘숲과 마을’ 축전이 있게 한 뿌리가 되는 사상이다.

시청의 송창린 계장과 읍사무소의 김경환 계장 역시 관광수입 보다 마을에 예술인들이 모여들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행사와 운동을 진행하며 문화마을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 데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진밭마을은 총 23호로 이 가운데 50세 미만 인구가 거의 없어 문화적 활력소가 되어야 할 젊은 층의 인구가 전무한 형편이다. 이런 곳에 지역예술인과



외지의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축전이 끝나도 작품들을 계속 전시해 놓아 생태문화마을을 가꾼다는 취지는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2001, 지역문화의 해’의 주제인 ‘사람 · 삶터 · 어울림’과 호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이 올해로 끝나더라도 지역문화를 가꾸려는 움직임에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이다. **김**



합천

경남의 오광대, 합천에 모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문화마을

광복절인 8월 15일, 경남 합천군에서 제2회 오광대(야류)탈춤·탈장승 대축제가 열렸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후원하고 밤마리오광대보존회와 덕곡면(면장 최호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남에서 전례오는 여러 오광대놀이들의 발상지로 추정되는 덕곡면 울지리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총 17개 단체에서 공연인원만 350여 명이 넘는 이번 행사는 각지에서 조금씩 다르게 전승되고 있는 오광대놀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고성오광대, 수영야류, 진주오광대, 통영오광대, 김해오광대, 초계대광대, 밤마리오광대 등이 돌아섰고, 그밖에 장승깎기 대회, 판소리와 함안화천농악, 민민노래자랑, 우포사진전, 대구약령시 사진전 등이 있어 면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울지리 주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행사를 치르고자 마을 전체를 단장하고, 탈장승거리를 만드는 등 의욕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호준 면장이 덕곡면이 오광대놀이 발상지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평소 꾸준히 연구조사를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기부여 통한 주민참여, '덕곡은 세상의 중심'

최호준 면장은 덕곡면이 하루에도 버스가 한 대밖에 다니지 않을 정도로 합천에서도 가장 교통이 불편한 오지라는 단점을 오히려 독자적이고 특징적인 문화마을을 가꾸는 조건으로 활용하였다.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던 면민들도 그의 열정에 감복하여 하나둘씩 호응하여 이제는 마을 주민 모두가 신바람이 나서 마을을 가꾸고, 자신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다.

이것은 지역문화를 가꾸는 데 있어, 동기부여와 이를 통한 주민참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 주는 소중한 사례이다. 여기서 밤마리오 오광대의 실제 발상지인지,

탈장승 개념이 민속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주체적인 활동을 펴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덕곡은 더이상 지방이나 주변부가 아니다. 오광대를 퍼트린 '세상의 중심'인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야말로 바로 지역문화 가꾸기의 시작인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성인 ‘선비’ ‘평생 걱정’ 하지만 ‘하루 근심’ 안한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거나 그 나라와 시대를 이끌어 온 고유한 정신이 있다. 중세유럽의 기사도 정신, 미국의 개척자 정신, 근세 일본의 무사도 정신 등.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까지 그 맥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고유한 정신으로 신라시대에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화랑도 정신을, 고려시대에는 호국정신을,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선비정신을 많이 꼽는다.

선비는 타고난 신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수련으로 형성된다는 정신사적 의미를 갖는다

‘소학(小學)’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10세가 되면 남자아이는 사랑에서 아버지와 자며 선생을 찾아가 배우고 20세가 되면 관례를 하고 널리 배우며, 30세에는 아내를 맞아 살림을 하며, 40세에는 벼슬에 나가고, 70세에는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생애의 과정은 모든 인간의 평생과 비슷하지만, 선비로서의 생애적 특징을 찾자면 크게 학업과 벼슬살이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선비는 독서인(讀書人)이요 학이다. 선비는 한평생 학업에 정진하고, 특히 가정에서는 교육과 함께 밖으로 스승을 찾아가서 오랜 기간동안 교육을 받는다. 선비는 타고난 신분으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수련으로 형성된다는 정신사적 의미를 갖는다. 선비가 배우는 학문의 범위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인

선비의 행동지침(九思)

1. 볼 때는 분명하기를 생각한다(視思明)
2. 들을 때는 확실하기를 생각한다(聽思聰)
3. 낯빛은 온화하기를 생각한다(色思溫)
4. 태도는 공손하기를 생각한다(貌思恭)
5. 말은 충실하기를 생각한다(言思忠)
6. 일은 신중하기를 생각한다(事思敬)
7. 의심나면 물어보기를 생각한다(疑思問)
8. 분이 날 때는 재난을 생각한다(忿思難)
9. 이득을 보면 의로운기를 생각한다(見利思義)

간의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일의 마땅한 도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유교의 학문은 일상의 비근한 데에서 출발하지만 심층에는 인간심성의 이치와 하늘의 명령에 관한 고매함이 있다. 선비는 학문을 통해서 지식의 양적 축적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를 확신하고 실천하는 인격적 성취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선비는 항상 자신의 인격적 도덕성을 수양함과 동시에 그 인격성을 사회적으로 실현했다

‘대학(大學)’에서는 밝은 덕을 밝히는 일(明明德)과 백성들과 친애하는 일(親民)의 사회적 과제를 가르친다. 선비는 항상 자신의 인격적 도덕성을 수양함과 동시에 그 인격성을 사회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공부는



이 문 학
경상북도 봉화군 산업경제과



●
선비는
현실적·감각적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신념을 실천하는 데 꺾이지
않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선비는 임금과 사이에
의리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의리가 없으면 신하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다.

이치를 탐구하는 지적인 일과 이를 실천하는 행위적 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비는 자신의 덕을 사회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관직의 길로 나갔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부터 과거 시험을 치르고 벼슬할 기회를 찾았던 것이다. 관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펴고 신념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았다.

관직에 나가면 상관을 받들어야 하고 가장 높은 권위인 임금을 섬겨야 한다. 그들은 임금과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신하로서 복종과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는 선비는 임금과 사이에 의리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의리가 없으면 신하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다. 바로 여기에 신하로서 관직에 나간 경우와 직업으로서 나간 경우의 차이가 드러난다. 곧 선비는 언제나 관직에 나가서도 그 직책의 성격

선비정신

1. 학문하는 정신(學問精神)
2. 의리정신(義理精神)
3. 예의정신(禮儀精神)
4. 청빈정신(淸貧精神)
5. 전문가 정신(專門家精神)
6. 실천정신(實踐精神)
7. 관용정신(寬容精神)

과 임금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하며 임금의 잘못이 있으면 간언해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고 바른 도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직책이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로는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사회까지 그 시대적 양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선비정신은 각 시대에서 지도자적 구실을 하는 지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왔다.

개화 이후에도 시대이념을 수호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지성인의 구실이 요구되어 왔다. 독립투쟁기에는 의사(義士)·열사(烈士)가 있어야 했고, 산업성장기에는 경영자·기술자가 있어야 했다.

선비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념적 지도자, 지성인을 의미한다. 전통의 선비상(像)은 우리시대에서도 의미있는 선비의 조건을 제시해 준다. 곧 선비는 현실적·감각적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상승하기를 추구하는 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그의 신념을 실천하는 데 꺾이지 않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선비정신은 인격의 모범이요 시대의 양심으로써 인간의 도덕성을 개인 내면에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는 원천이다.

역사는 전통의 극소화 진행에서 극대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정신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2건국운동, 부정부패 척결운동 등 도덕성 회복을 막연히 외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의와 재평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상적인 서구화, 자조화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의 심연에 살아있는 전통적 가치를 정리해 그 바탕 위에 미래의 새로운 표층을 더한다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우뚝 설 것이다. 전통에 빛나는 한국의 선비문화를 밝혀 이 세상 곳곳에 그 정신과 삶을 정신혁명의 근본으로 삼아보자. 

선비의 36가지 실천 덕목(德目)

1.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不怨天 不尤人)
2. 이 세상에 도를 펴는 것을 자기 책무로 삼는다(仁以爲己任)
3.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던진다(見危致命)
4. 항상 세상을 걱정한다(君子 有終身憂 無一朝之患也: 군자는 평생 동안의 걱정은 있지만, 하루 아침의 근심은 없다)
5. 널리 대중을 사랑한다(汎愛衆)
6. 세상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君子不器)
7.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先行其言 而後從之)
8. 의리에 따라 행동한다(義之與比)
9. 남의 장점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나쁜 점은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成人之美 不成人之惡)
10. 가난을 마다하지 않는다(安貧樂道)
11.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한다(不患人之不知己 患不知人也)
12. 아첨하지 않는다(巧言令色 鮮矣仁)
13. 항상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一日三省: 하루에 세 번 반성한다.)
14. 몸을 닦고서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修身齊家)
15. 조상을 극진히 받든다(崇祖, 原始報本)
16. 효를 백행의 기본으로 삼는다(孝 百行之源)
17. 성실하고 신용을 지킨다(主忠信)
18. 허물이 있으면 당장 고친다(過則勿憚改)
19. 자기보다 나은 자를 벗으로 삼는다(無友不如己者)
20. 일에는 민첩하고 말을 신중하게 한다(敏於事而慎於言)
21. 먹는 일에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食無求飽)
22. 거처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居無求安)
23. 이름을 바로잡는다(正名: 명분을 따진다)
24. 온화하면서도 엄하게 한다(溫而).
25.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다(危而不猛)
26.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不恥下問)
27.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가득 차 있으면서도 텅 빈 듯이 한다(有若無 實若虛)
28. 남이 침범해도 맞받아 다루지 않는다(犯而不校)
29. 두루 친하되 편을 지지 않는다(周而不比)
30. 마음을 늘 편하고 너그럽게 지낸다(坦蕩蕩)
31. 화합하나 뇌동하지 않는다(和而不同)
32. 태연하나 거만하지 않는다(泰而不驕)
33. 언제나 자기에게서 구한다(求諸己)
34.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주견을 말할 때도 옛사람의 말씀을 인용한다(必則古昔 稱先王)
35. 사사로운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앞세운다(先公後私)
36.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推己及人)

대전사랑문화유산순례답사 · 문화강좌 퀴즈

1 지폐 천원권 전면에 그려져 있는 퇴계선생의 유품은 무엇일까요?(옛날 궁중 놀이기구 이기도 합니다.)

- 투호놀이 향아리

2 지폐 천원권 후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 도산서원(사적 170호, 안동소재)

3 지폐 오천원권 후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무엇이며 보물 몇호로 지정된 것일까요?

- 오죽헌(강릉소재, 보물 165호)

4 지폐 만원권 전면에 그려져 있는 기구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소재되어 있을까요?

- 물시계, 덕수궁 소재(국보 229호 : 세종 16년 제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것)

5 지폐 만원권 후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 경희루(서울소재 국보 224호)

6 태극기의 오대정신은?

- 평화정신, 단일정신, 창조정신, 무궁정신, 광명의 정신

7 도시와 도시간의 도로 거리의 기점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며,

그 표시는 어디인가요? (예를 든다면 철도는 각 역을 기점으로 거리의 기점으로 하는데 도로의 경우 대전과 논산을 200km라고 하면 '대전시내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한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 기점표시 : 도로원표(서대전사거리 광장쪽으로 인도에 표시되어 있음)

8 대전을 상징하는 캐릭터에는 꿈돌이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와 세계에서 날아온 큰 꿈을 가진 어린왕자를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과학' 과 '미래' 라는 대전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 한꿈이

9 우리나라 태극기 개양일은 몇번이며, 몇일 몇일 무슨날인가요? 8번

- 1. 1월 1일, 신정
- 2. 3월 1일, 3.1절
- 3. 6월 6일, 현충일
- 4. 7월 17일, 제헌절
- 5. 8월 15일, 광복절
- 6. 10월 1일, 국군의 날
- 7. 10월 3일, 개천절
- 8. 10월9일, 한글날

10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는 몇회 대회 일까요?

- 17회

11 2002년 월드컵 본선은 몇 나라(팀)가 참가할까요?

- 32개국(팀)

12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대회는 어느 대회일까요?

- 스위스(1954년)

13 대전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수는?

- 3경기

14 대전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중 16강전 일정은?

- 2002. 6. 18

15 2002 월드컵 대회기간은?

- 2002. 5. 31 ~ 6. 30
〈자료제공: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우리 고장의 속담

다듬잇돌을 베고 누우면 입이 비뚤어진다.
다듬잇돌을 베고 눕지 말라고 하여 이르는 말.

다람쥐 계집 얻은 것.
힘에 겨웁고 거추장스럽다는 말.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호령한다.
못난 사람이 집안에서만 큰 소리하고 호령하나, 밖에 나가면 꿈쩍도 못한다는 뜻.

다 떠먹은 김치독.
쓸모가 없어졌다는 말.

단 불에 나비 죽 듯.
순식간에 이루어짐을 말함.

단술은 먹은지 여드레 만에 취한다.
무슨 일을 겪고 난 한참만에야 그 영향이 드러난다는 말.

단풍도 떨어질 때에 떨어진다.
무엇이나 제 때가 있다는 말.

닫는 사슴을 보고 얻은 토끼를 잃는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볼 뿐이라 하는 말.

달갈도 굴러가다 서는 모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뜻.

달갈 지고 성 밑으로 못 가겠다.
의심이 많고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달도 차면 기운다.
세상 모든 것은 번성할 때가 있으면 또 한 쇠퇴해질 때도 있다는 말.

달무리한 지 사흘이면 비가 온다.
달무리 지면 머지 않아 비가 올 징조라는 말.

달팽이가 바다는 건너다니.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을 때 하는 말.

달팽이 뚜껑 덮는다.
입을 꼭 다물고 말이 없을 때.

달이 셋이면 문 열어 놓고 잔다.
딸 부자 집에서 혼인을 치르고 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가산이 다 없어 진다는 말.

달 물 먹듯.
무슨 일이나 그 내용도 모르고 건성으로 넘긴다는 뜻.

달 발 그려듯.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매우 서툴고 어색함을 이룸.

닭의 새끼 봉이 될까.

타고난 성품은 어떻게 해도 고치기 힘들다는 말.

닭이 천이면 봉이 한 마리 있다.
닭이 천 마리나 있으면 그 가운데는 봉도 한 마리 있다는 말로 여럿이 모이면 그 가운데는 뛰어난 이도 있다는 뜻.

담배 씨로 뒤옹박을 판다.
사람이 극도로 잘거나 잔소리가 심함을 이룸.

담뱃대로 가슴을 찌를 노릇.
기가 막히고 답답하여 아무리 하여도 시원치가 않다는 뜻.

닷새를 굶어도 풍잠 멋으로 굶는다.
체면 때문에 곤란을 무릅쓴다는 뜻.

당나귀 귀 치레.
어느 한 부분을 지나치게 꾸미어 그 부분만 눈에 띄는 것을 비유.

당나귀 하품한다.
당나귀가 우는 것을 그 입 벌린 것만 보고 하품한다고 하듯, 내용은 모르고 엉뚱한 말이나 짓을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대갈 마지 같다.
갖은 어려움을 겪어서 아주 단단하고 야무진 사람을 비유한 말.

대궐 역사는 한이 없다.
대궐 짓는 일, 즉 나라의 일은 끝이 없이 백성들에게 항상 고역이란 뜻. **문**

(자료제공:오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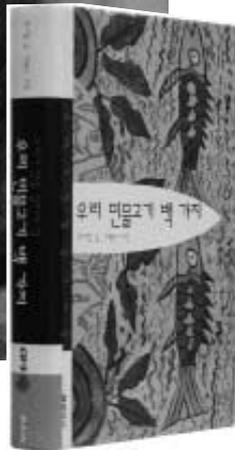


열목어 노닐면 이곳이 심산유곡이런가



자료제공 : '우리 민물고기 백 가지'는 현암사에서 펴낸 책으로 우리의 민물고기를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한 열정으로 최기철씨가 글을 쓰고 이원규씨가 사진을 찍어 실었습니다.

연어과(Brachymystax lenok Pallas)의 냉수성 북방계 어종이다. 이들은 물이 맑고 찬 곳, 수환경이 쾌적한 곳에서만 산다.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 이하여야 하고 마음놓고 헤엄을 칠 수 있도록 물에 불린 산소가 9ppm 이 넘는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바닥에는 큰돌이나 바위가 깔려 있어야 하며 곤충이나 물고기 등 먹거리도 넉넉해야 한다. 열목어가 서식하는 곳이라면



주변에 숲이 울창해 수면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열목어가 사는 곳이라면 거기가 심산유곡임을 눈치챌 수 있다.

눈에 열이 많아 눈알이 새빨갳다고 하며 열을 식히기 위해 찬물을 찾는 까닭에 열목어(熱目魚)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여항어라고도 했으며 조상들이 귀중한 식용어로 삼았던 종이다.

몸은 가늘고 긴 편이며 옆으로 납작하다.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가 보통 40~70cm이고, 때로는 1m 이상 되는 것도 있다. 비늘은 작아서 옆줄비늘수가 123~180개이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 기름지느러미가 따로 있다. 몸의 바탕은 황갈색이고 어린 개체에는 몸의 옆면에 9~10개의 흑갈색 가로무늬가 나타난다. 눈동자보다 작은 흑갈색 반점이 온몸에 흩어져 있어 다른 물고기와 쉽게 구별된다. 육식성이어서 물 속에 사는 곤충이나 어린 물고기, 개구리 등을 잡아먹는다.

눈이 녹는 3, 4월에는 암컷과 수컷이 방정을 하기 위해 한곳에 모여 온통 소란을 피워대는데 수온 5~6℃정도에 유속이 완만한 여울과 소(沼)의 중간부분에서 자갈을 파고 산란을 한 다음 묻어서 보호한다.

열목어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 담수어 4종(무태장어, 어름치, 황쏘가리, 열목어) 중의 하나이다.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에 분포했었지만 지금은 강원도의 일

부지역에만 남아있어 정암사 계곡에 서식하는 열목어를 천연기념물 제73호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계곡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열목어를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편집부〉

다시 보는 명작 **대부** The Godfather

박계현 기자 fire@kccf.or.kr

II 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72년도 빅히트작 '대부'는 가족애와 폭력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두 모티브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는데 그 영화적 생명력 있다. 마리오 푸조 원작 자체의 참신성, 니노 로타의 로맨틱하면서도 웅장한 테마음악의 매력, 여기에 말론 브란도의 기막힌 대부상 창출이 어우러지면서 영화의 격조를 높이고, 대중적 선풍을 불러일으키는데 한 몫을 한다.

이 영화를 30년전에 이미 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TV에서 <대부>를 재방영하더라도 화면 앞에 모여들어 마론 브란도와 알 파치노의 연기에 흠뻑 빠져든다.

시실리아에서의 이민과 모진 고생 끝에 미국 암흑가의 보스로 군림하는 마피아두목 돈 꼬르네오네. 사람들은 재력과 조직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갖가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를 '대부(代夫)'라 부른다.

가족 모두가 살해 당한 시실리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9살짜리 돈 꼬르네오네는 미국으로 도피하여 밑바닥 범죄 세계를 경험하면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다. 정계, 경찰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힘과 조직으로 밀수·부정청탁 등 부정 행위도 서슴치 않는다. 그는 부모의 복수를 위해 시실리로 돌아와 조직적 범죄를 통해 비약적인 성공을 거둔다.

그러던 어느날 돈 꼬르네오네의 라이벌인 닷타리아 패밀리의 마약 밀매인 소롯소(알 레티에리 분)는 돈 꼬르네오네를 죽이면 천하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그를 저격, 중상을 입힌다.

한편, 돈 꼬르네오네의 막내 아들 마이클(알 파치노 분)은 대학 출신의 인텔리다. 아버지의 저격 사건을 계기로 조직에 개입하여 레스토랑에서 소롯소를 사살하고 시실리로 피신한다. 시실리아에서 시골 아가씨와 결혼하지만 집요한 추적으로 아내를 잃는다. 장남 소니(제임스 칸 분)는 자신의 여동생 코니를 학대하던 카를로를 혼내주니 이에 앙심을 품은 카를로는 자신의 패밀리와 소니를 배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니가 처참하게 암살당한다. 돈 꼬르네오네의 일가는 붕괴직전에 직면한다. 돈 꼬르네오네 일가를 위해 귀국한 마이클은 대학시절 애인인 케이(다이안 키튼 분)와 재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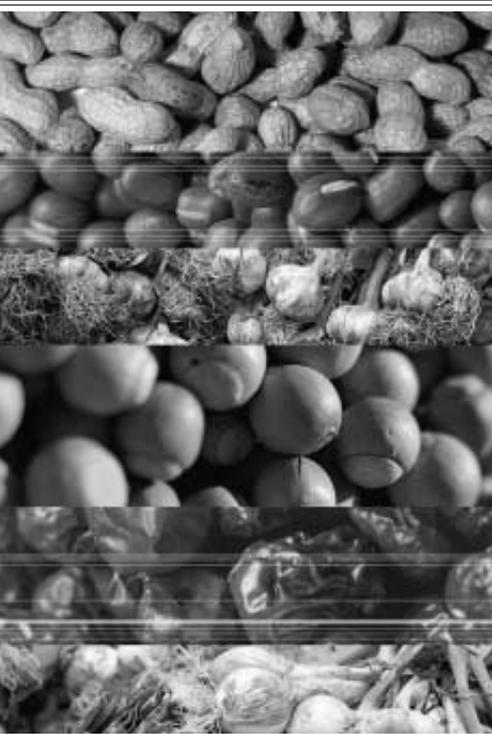
얼마 후 손자와 뜰에서 놀던 돈 꼬르네오네가 심장발작으로 급사, 마이클이 자리를 이어받아 이 집안의 양자로 오른팔 역할을 하는 변호사 톰(로버트 듀발 분)을 참모로 조직을 단결시켜 적을 격퇴해 나간다.

대부시리즈는 단순한 갱 영화라기 보다는 마피아단의 생생한 묘사에 역점을 둔 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마피아의 부패란 곧 미국의 부패상을 암시하는 메



풀뿌리 · 나무껍질도 잘쓰면 ‘특효약’

●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식품들도 잘만 섭취하면 특효약이 될 수 있다. 민간요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확인되어 나름대로 튼튼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요법이 있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식품들도 잘만 섭취하면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것. 민간요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확인되어 나름대로 튼튼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나 값비싼 약재보다 훨씬 더 실통한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민간요법은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사용되어온 까닭에 사용 방법이 지극히 간단하다. 가장 흔히 앓는 질병에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시장에서, 집 앞의 수퍼에서 찾아보자.

감기 무 · 파 · 마늘 · 생강 · 들깨잎 · 메밀 싹 · 양파 · 매실 · 연뿌리 · 대추 · 호박 · 표고버섯 · 굴 · 다시마 · 우엉

- 컵에 1/4정도로 잘게 썬 무와 생강을 약간 썰어 넣고 열탕을 부어 마시면 목감기에 효과가 있다.
- 긴 파의 뿌리부분(흰부분)20g, 마늘 10g을 가늘게 썰어서 달여 마시면 초기의 감기에 잘 듣는다.
- 들깨 잎 한 줌과 메밀 싹 네 손가락에 꿀을 적당히 넣고 죽을 쑤어서 식기 전에 먹고 땀을 내면 해열 작용을 한다.

기침 목은 닭 · 검은 엿 · 배 · 참마 · 사탕수수 · 은행 · 배 · 꿀 · 마늘 · 수수엿 · 꿀 · 호두

- 열로 인한 기침은 목은 닭을 잡아 배속을 비워 그 속에 검은 엿 0.5kg과 배 두 개를 넣고 다시 잡아매어 푹 고아 먹는다.
-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은 참마와 사탕수수를 쥘 즙을 1회 15cc, 1일 2회로 나누어 마신다.
-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기침은 은행 10~12g을 볶아서 껍질을 벗겨 물로 달인 것에 꿀을 타서 먹으면 좋다.
- 목에 염증이 있어 기침이 날 때에는 배 즙에 목은 생강즙과 꿀을 가해서 달인 것을 먹는다.

당뇨 파뿌리 · 보리쌀 · 현미 · 울무쌀 · 녹두 · 무엿 · 배 · 연잎 · 마늘 · 두릅껍질 · 난초 · 양배추 · 나팔꽃 · 호박 · 솔잎 · 무화과 · 참마 · 시금치 · 수박

- 파뿌리 한줌을 햇볕에 말렸다가 물 한 사발을 넣고 반 사발이 되도록 달인다. 찌꺼기는 짜 버리고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다.
- 시금치60~120g, 새의 위대 15g을 넣은 수프를 만들어 1일 2~3회 마신다.
- 현미의 수프를 상음한다.
- 울무 30~60g을 싹에 섞어서 죽을 만들어 1일 1회 먹는다.
- 수박껍질 15g과 동아껍질 15g, 천화

분12g(한약방에서 구입)을 가하여 달여 마신다.

• 입이 마르고 다뇨인 사람은 참마 60g을 1일 3회로 나누어 먹는다.

고혈압 칩뿌리·무씨·갓·다시마·노티나무·벽오동·쑥·마늘·두릅나무·양파·솔잎

• 칩뿌리를 햇볕에 말렸다가 잘게 썬 것 40g, 갓 알갱이 20g 물 500ml를 토기 그릇에 넣고 약한 불에서 한시간 정도 달이면 절반쯤 되는데 이를 식후 30분, 하루에 세 번 먹는다.

위염 결명자·계란껍데기·무·마늘·굴·부추·당근·참깨·밀·생강·굴 껍질, 꿀, 참기름, 닭, 옷나무 껍질

• 만성위염은 계란 껍데기 한 개와 결명자 섞은 것 2g을 보드랍게 가루 내어 한번에 1~1.5g씩 하루에 세 번, 밥 먹기 전에 먹는다.

• 위하수나 등 위가 냉한 사람은 삶은 무를 먹는다.

• 위염으로 구도가 있을 때는 마늘 1개를 잘 구어서 벌꿀과 섞어 천천히 먹는다.

• 위장이 냉해서 활동이 힘들거나 궤양성으로 출혈을 수반할 때는 부추의즙 10~20ml를 마신다.

• 소화불량은 당근을 달여서 매일 먹는다.

• 설사와 소아의 경련성 발작은 소맥분(밀가루)으로 만두를 만들고 미초 125cc와 함께 볶아 노랗게 된 것을 1회에 9~15g씩 1일 2회 먹는다.

• 냉에 의한 위통은 생강 6g을 열탕에 넣고 벌꿀을 가해 마신다.

피로권태감 참깨마늘·현미·참쌀·검은콩·완두콩

• 검은 참깨를 볶아서 호두를 가해 분말로 만들고 꿀을 섞어 잘 혼합한 것을 1회 2수저, 1일 2회로 나누어 먹는다.

• 마늘과 생강을 갈아 으개서 열탕을 부어 마신다.

• 현미를 상식한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잘 씹어서 먹도록 한다.

• 돼지고기나 쇠고기가 든 즙에 참쌀로 만든 떡을 넣어 먹는다.

• 검은콩 껍질 9g과 밀기울9g을 물에 달여 마신다.

• 완두콩과 양고기를 함께 달여 먹으면 효과가 있다.

설사 마늘·부추·매실·완두콩·연

• 세균성 설사를 하는 사람은 마늘 찐 즙으로 관장한다. 동시에 무우60g, 마늘 5개를 달여서 먹는다.

• 부추는 강한 살균작용이 있으므로 세균성이므로 설사를 할 때 죽을 쑤어서 먹는다. 사과 2개를 갈아서 식사 대신에 먹는다

• 설사, 구토, 식욕부진에는 매실을 엑기스로 만든 매육엑기스를 1일 3회씩 나누어 먹는다.

• 완두콩을 상식한다.

• 연자 500g에 꿀을 가해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환을 만들어 먹는다.

체 좁쌀·소금·생강·감나무잎

• 일반식체는 좁쌀과 소금을 3:1의 비율로 섞어서 1~2일간 두었다가 불에 가열해 가루로 만들어 한번에 한 숟가락씩 하루에 세 번 먹는다.

• 찬 음식 먹고 체한 데에는 생강즙에

설탕을 적당히 넣어서 한번에 한 숟가락씩 하루에 세 번, 밥 먹기 전에 먹는다.

• 술 마시고 체한 데에는 감나무 잎을 적당히 뜯어서 달여 먹는다.

• 돼지고기를 먹고 체한 데에는 새우젓국을 한두 숟가락 복용한다.

구토 생강·굴껍질·녹두가루·부추 뿌리·칩뿌리·계란흰자위

• 생강 50g을 물 한 사발에 넣고 농도가 70% 되게 달여서 한번에 100~150ml씩 하루에 두 번 먹는다.

두통 대추·마늘·은행나무 열매·술

• 은행나무 열매 10~20g을 짓찧어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냉수에 타서 먹는다.

현기증 보리쌀·소주·붉은 팔·병풍나물

• 보리쌀 5홉에 물 3l를 넣고 서너 시간 삶는다. 천이나 체로 받아 1l에 소주200ml를 타서 한번에 한 모금씩 하루에 세 번, 밥 먹기 전에 마신다.

딱꿀질 무·꿀·굴껍질·계란·쑥

• 무를 깨끗이 씻고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낸 다음 꿀을 적당히 섞어서 먹는다.

목통 복숭아나무 잎·검정콩

• 복숭아나무 잎을 삶아서 물은 버리고 삶은 잎을 형겅에 두툼하게 찐다. 살을 데지 않을 정도로 식힌 다음 찜질을 한다.☞

(편집부)

Ⅱ 역사왜곡 문제 지혜로운 대응 필요하다

●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철저한 규탄과 함께 그들의 속사정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가? 현재 일본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미래를 짚어질 젊은이들이 기가 빠지고 맥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 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명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는 그동안 쌓아왔던 한일간의 우호와 세계 평화를 단박에 깨뜨리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도 최상룡 주일한국대사를 불러들이고 이어 대중문화교류 중단등 강경한 대응을 표명했다. 일본 고이즈미총리의 신사참배 역시 한일 감정에 불을 당겼다

한국에게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라다. 아무리 바다 하나 건너 이웃이지만 피해자인 한국과 가해자인 일본이 그리 쉽게 화해될 리 없다.

이런 마당에 더욱 어이없는 일은 싸움과 갈등의 불씨가 피해자측에서 튀어나온다는 사실이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사과는 커녕 반성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잘 말해준다. 최근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이 발간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요구 자료'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과 태도를 잘 정리해 놓고 있다.

〈일본은 1982년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규정에 첨가했다.

그리고 1995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998년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의 한국 감정이나 식민지 지배등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위의 규정이나 선언의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과서는 '국제 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197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 협약'(1965),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 실천 체계'(1995)등에 나타난 유네스코등 국제 기구의 정신에도 위

배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거나,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는 내용이 현행 교과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최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일부에는 인류의 평화공존이나 한국과의 우호친선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일간 민족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화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철저한 규탄과 함께 그들의 '속사정'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가? 현재 일본은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느끼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가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은 기가 빠지고 맥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취객 일본인을 위해 희생한 한국인 대학생을 영웅으로 추앙할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더욱이 일본의 극우 세력에게 있어서는 '기 빠진' 일본 젊은이들에게 '침략자의 자식'이라고 말해 더 기빠지게 하기 보다는 '대일본제국'이란 옛 영예를 조금 더 포장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명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지

“삿트는 일본제국주의 경계하자”



서산문화원 앞에 걸린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현수막. 전국의 문화원은 지난 5월 23~24일 2001전국문화원장연수회에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문화원마다 현수막을 걸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데 나서고 있다.

금 젊은이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사무라이' 식 역사 기술을 어떻게라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간파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의 모 문화원에서는 일본어 강좌를 철폐하고 이같은 사실을 일본 공민관에 보냄으로써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올바른 정신과 의식을 고양할 책무를 지닌 문화원은 일본인들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서까지 젊은이들의 기를 북돋우려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국민들에게 혼과 자긍심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강구해 다시 침략받지 않을 문화강국을 만들어나가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시한번 문화원의 사명과 역할을 생각해 하는 때라 하겠다. **문**

〈편집부〉

후소사 역사교과서의 역사인식 문제

1.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군사적 정복에 의한 지배기구로서의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임나일본부설’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남이 한일 역사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서는 이 설이 한일관계사 서술에서 침략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의 틀로 작용되고 있다.

2. 일본의 역사를 미화시키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철저하게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비교대상으로서 한국사를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를 언급할 때 조공·종속·복속국·속국·종주권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3. 일본군에 의한 군대의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태평양전쟁 당시의 반인륜적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했다.

이 교과서에서는 태평양 전쟁시 일본군이 조선에서 군대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 전쟁 범죄행위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태평양전쟁시 일본군의 비인도적 가혹행위의 주요부분을 은폐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의 서술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양국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임진왜란이나 강화도 사건, 한국강제병합 등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다.

5. 일본이 한국 등 타국에 입힌 피해를 축소 내지 은폐했다.

이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만행이나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상을 서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를 모독하는 가학사관(加虐史觀)이다.

6.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이 교과서에서는 식민지배 자체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오히려 시혜를 베푼 듯이 서술했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철도와 관개시설 등 식민지 수탈 시설을 마련한 것이 마치 조선을 개발하기 위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

7. 일본이 이웃나라와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해 온 사실을 경시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위주의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갈등 및 전쟁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이나 상호이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가야제국과의 평화적인 교역이나 조선시대의 통신사 왕래 등 우호적인 교류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8. 인종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서양의 백인종과 동양의 황인종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침략을 위하여 일으킨 러일전쟁을 마치 일본이 황인종을 대표하여 백인종과 싸운 것처럼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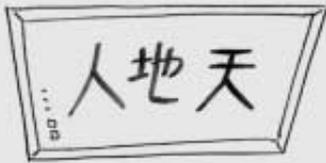
9. 학술연구 성과의 반영이 미흡하다.

이 교과서에서는 한국에서의 역사연구 성과는 물론이고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성과는 거의 무시했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사실의 서술과 해석에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¹⁰⁾

〈이 글은 정부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이 발간한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요구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세마치 장단을 아십니까?

고유한 리듬을 간직한 민족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다. 세마치 장단은 우리네 고유한 리듬이다. 우리 음악은 3박 계통의 음악이 주를 이룬다. 굿거리 장단과 함께 민요의 주류를 이루는 세마치장단은 세 번 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마치’라는 말은 ‘겨냥해서 때려 맞힌다’라는 고어 ‘마치다’에서 나왔다고 한다. 우리네 숨결과 삶의 정한이 녹아 있는 민속음악일 수록 더욱 그러하다. 거의 2박 계통의 중일(中日) 음악과 2분 박(拍:beat)의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은 구분이 된다. 우리 음악의 박(拍)은 3분박이 원칙인 까닭이다.



우리네 가락은 한 박이 1+1+1로 3등분 되는 것이 아니라 2+1 또는 1+2로, 즉 긴 것(長)과 짧은 것(短)으로 양분되면서 3분박을 유지한다. 서구의 박이나 중일(中日)의 박이 균일하게 나뉘어지는 데 비해 우리네 박은 등분을 거부하고 장단(長短)을 섞는 부가적인 성질을 지닌다.

서양 음악의 박(拍)은 몸의 움직임인 보행과 관계된다고 하는데 박(拍)은 숨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호흡은 규칙적이면서도 정서에 따라 일정치가 않지만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네 판소리 같은 노래는 긴 시간동안 계속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네 고유한 장단인 세마치는 생리적인 박(拍)이므로 오래 노래불러도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하다. 이런 점이 우리네 세마치가 외국 것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한국의 토속 음악 속에는 3박의 요소가 숨쉬고 있다. 우리 음악에 3박이 많은 이유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숭상해온 3이라는 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화를

살펴보면 3이라는 수와 연관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재사상(三才思想)인 천·지·인(天地人)은 대자연에 순응하고 천지와 합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세계관이며 우주론적 사고의 기틀이다.

우리는 3이라는 수(數)를 신성시한다. 삼신산(三神山), 셋김굿의 한 과정인 삼신굿, 인간의 생명을 빛낸다는 삼신할미, 초헌·아헌·종헌으로 술을 세 번 올리는 제사의식, 죽은 사람의 초혼(招魂)에서 부르는 세 번의 외침 등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삼 세 번’이라는 말을 본능처럼 써 왔다. 이러한 의식의 성향이 음악에서 3박자 장단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몸 속에는 이러한 3박자의 음악적 인자가 용해되어 흐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네 음악은 어깨춤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온몸을 굴러 춤추게 하는 흥(興)으로 통한다. 중모리 장단, 중중모리 장단, 자진모리 장단, 세마치 장단, 굿거리 장단, 타령 장단 등 모두가 한결같이 세마치 장단으로 흥겨운 음악을 우리는 얼마나 즐기는가?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서양음악 음계를 열심히 가르치면서 우리네 고유리듬인 세마치 장단을 멀리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생활문화 운동을 통해 우리네 세마치 장단이 생활 속으로 무르녹게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국문화원연합회 발간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중에서> **☞**
(편집부)

지역문화 뉴스

서울 특별시

【마포문화원】

2001 한여름 밤의 강변축제

마포문화원은 지난 8월 18일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강변축제를 거행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팝페스티벌오케스트라, 팝아티스트 임학성, 성악가 김향란·강무림, 마포여성합창단, 가수 안치환, 두드락이나와 공연했다. 마포문화원은 또 한국최고흥행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도 상영했다.

【영등포문화원】

개원 2주년 기념행사

영등포 문화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지난 8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영등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부산 광역시

【연제문화원】

2001 부산바다축제 해변 퍼레이드

연제문화원 장구단은 지난 7월 23~27일 4박5일 동안 전국해수욕장 및 연안 오염방지 캠페인 버스투어에 참가해 환경정화

를 위한 순회공연을 갖는 한편, 무용단과 함께 8월 1~4일까지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01부산바다축제 행사'에서 부채춤·사물놀이·살풀이 공연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학교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의 향유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1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기간=2001년 9월17일~12월 7일 (11주간)

△신청기간=2001년 9월 10일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연제문화원 (051)759-3113, 665-4458

【기장문화원】

기장문화원은 지난 8월 4일 기장문화원 강당에서 제2대 임원취임식을 가졌다.

대구 광역시

【달성문화원】

달성충효청소년문화학교 입학식

달성문화원은 지난 7월 24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주인의식고취를 위한 제16회 달성충효청소년문화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지회】

대전사랑역사탐방 및 문화강좌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5개지구 별로 대전사랑역사탐방 및 문화강좌를 실시했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내동리 지식묘·둔산선사유적지·이성계태실·회덕향교 등 전문설명가와 함께 문화유산현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69>

【대전서구문화원】

제3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대전서구문화원은 지난 7월 25~31일 7일간 제3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예전에 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작품을 출품했고 연령층 또한 다양했으며 완성도가 뛰어난 수준작들이 많이 출품됐다.

【대전중구문화원】

15일까지 보문미술대전 당선작 전시

대전중구문화원은 8월 8~10일 인근대학의 사진부 사진전에 이어 8월 18~24일 '출향작가와 지역작가와의 우정의 만남' 8월 25~30일 제 11회 토우작품전을 열었다. 대전중구문화원은 특히 독창적인 생활문화 창조를 통한 중구미술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3회 보문미술대전을 개최했다. 당선된 작품은 9월 1~15일까지 중구문화원에 전시된다.



연제문화원



대전광역시지회

‘토야만들기’ ‘곰방대 가마’ ‘신데렐라 찾아라’ 등 ‘세계 도자기엑스포 2001’ 볼거리 · 놀거리 풍성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행사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경기 이천, 여주, 광주 3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도자기엑스포는 21세기 들어 최초로 경기도가 개최하는 세계적인 도자 행사로 전세계 80여개국에서 출전했고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도자 예술의 다양한 조류를 수용하고 21세기 도자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도자 예술과 산업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도자 예술부분은 세계도자문명전, 국제공모전, 세계적 작가 초대전, 한국 전통 및 현대도자 작품전, 민속도자전, 국제회의와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산업부분에서는 세계 유수의 도자기 업체와 관련기업들이 참가해 도자기 기술, 첨단소재를 전시함은 물론 각국 도자 제품을 판매·교역하고 있다. 이로써 도자 관련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일대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전시 외에도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게 마련됐다. 먼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열리는 행사 ‘토야, 토우 만들기’, ‘내가 만든 도자기’ 등이 대표적이다. 엑스포 마스코트인 토야와 인형, 도자기를 관람객이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도자 전공자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도자기 제작하는 모습을 다채로운 경연대회 방식으로 보여주는 클레이(점토) 올림픽도 열리고 있다.

세계민속공연행사는 브라질 삼바무용단, 가봉의 국립민속무용팀, 중국 광주의



‘작은 종달새 예술단’ 등 세계 각국 20여 개 팀이 참가해 3개 행사장을 순회공연하고 있다.

전 지역에 테마공원도 조성돼 있다. 이천의 토야랜드는 타일도자를 이용, 동식물을 타일 모자이크와 조형물로 꾸몄다. 담배장죽과 가마를 하나로 묶은 50m길이의 ‘곰방대 가마’는 관객이 내부에서 가마의 촉감을 느껴볼 수 있는 통로구실을 한다.

여주의 한글나라는 한글 자모를 영구 보존형으로 설치한 공원이고 광주의 도깨비 나라는 착시현상을 이용해 위로 굴러 올라가는 공, 비스듬히 떨어지는 분수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에선 “백자 사기말 감투놀이”가 볼 만하다. 이 놀이는 사기로 만든 말을 분원리 뒷산에 뿌리며 시작된다. 마을 대동제의 일부인 지역놀이를 광주 분원리 도공들이 재현하는 것. (매주 토요일과 개막식, 광복절, 추석)

여주에선 진흙 풀장, 진흙마사지, 진흙 마네킹, 미끄럼 놀이가 포함된 머드페스티벌(9월20일까지), 특수 제작된 세라믹 신발이 발에 꼭 맞는 여성을 선발하는 “신데렐라를 찾아라” (매일)도 열린다.

△교통=행사장마다 1천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무료 셔틀버스 이용을 권한다. 셔틀버스는 서울 상계·잠실·반포·사당, 성남 분당, 안양 비산동, 수원역 등의 거점과 행사장을 오간다. 3개 행사장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관람료=전지역 관람은 어른 1만원, 중고생 8천원, 어린이 5천원, 단일 지역 관람은 연령별로 7천원, 6천원, 4천원씩이다. 10일 이전에 예매하면 1천원씩 할인된다.



지역문화 뉴스

경기도

【경기도지회】

사무실 이전

경기도지회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내)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031)239-1020

△팩스=(031)239-3785

【과천문화원】

아빠와 함께 가는 유적지

과천문화원은 지난 7월 30일~8월 1일 청소년문화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학교 20가족, 총 40명을 선발해 '아빠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지 견학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무형문화재 105호(김정옥씨) 도자기 제작현장, 청운각, 문경의 KBS역사극 태조 왕건 촬영현장, 석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테마박물관, 이강년 생가 등을 견학하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가졌다.

【여주군 목아박물관】

제2회 한글 새김전

목아박물관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



까지 한달간 한글을 주제로 한 '제2회 한글 새김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18명의 작가들이 한글의 조형미를 한껏 뽐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문의=(031)885-9952~4

강원도

【태백문화원】

검룡소서 물의 축제 열려

태백문화원은 지난 8월 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한강발원지 검룡소에서 물의 축제를 거행했다.

【정선문화원】

여름 향토문화학교 열어

정선문화원은 지난 7월과 8월, 문화원 주관으로 한자교실(7월24일~8월17일), 향토사 연구 발표회(7월 25일), 제 17회 여름향토문화학교(8월9~11일)를 열었다.



정선문화원



과천문화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지회】

2001년 문화가족 연수회

충청북도지회는 지난 8월17~18일 이틀간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도내문화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문화가족 연수회'를 개최했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제4회 충주 세계무술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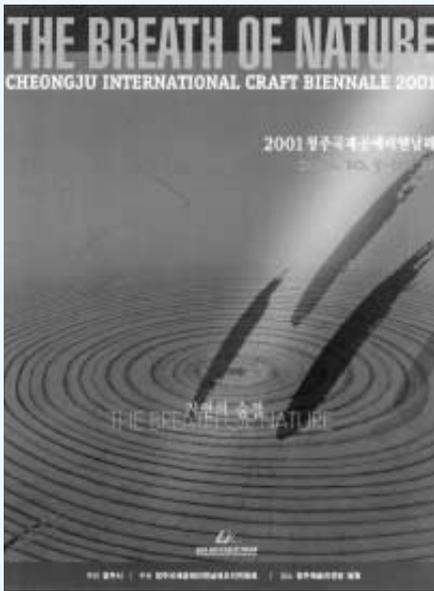
충주시는 10월 9~15일 7일간 한국의 전통무술인 택견과 중국의 전통 소림무술을 선보인다. '제4회 충주 세계무술축제', 충주체육관·수안보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무술시연·체험행사·무기전시관·무술왕선발·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국제교류와 화합

을 다지기 위해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의 전통 택견과 중국 소림무술의 세기적 대결이 벌어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문의=충주시청 문화관광과
T.(043)850-5171~2
<http://www.chungju.chungbuk.kr>



청주 '새천년 공예문화의 중심지' 로



'자연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국제 초대작가전·국제공예공모전·산업공예전·전통공예전이 개최된다. 이 비엔날레는 공예 전문가의 예술품을 만나면서 전통공예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실용공예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섭렵할 수 있어 공예산업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뿐만 아니라 주제공연과 기획행사·인형극·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됐다.

시민과 함께 하는 비엔날레가 되기 위해 공예워크숍, 시민노래자랑,

각종공연 등의 행사도 이어졌다.

또한 공예와 관련된 유일한 종합비엔날레인 이번 행사는 수준 높은 전시와 참가자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한마당을 이뤄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 국제적인 예술문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1 청주비엔날레

충주시는 지난 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01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를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한다.

청주를 세계에 알리고 새천년 공예문화의 중심지로 가꾸기 위한 이번 행사는



송파문화원 21~23일 '한성백제문화제', 공주문화원 내달11~14일 '백제문화제'

화려한 백제문화의 부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서울과 충남에서 부활한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5회 한성백제문화제와 무령왕 즉위 1500주년 기념 제47회 백제문화제가 그것.

송파구 주최 송파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는 17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2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3일까지 기념제, 동명제, 비류왕 즉위식, 한성백제역사문화행렬, 동별역사 문화행렬, 송파나루장터재현, 국제민속축제, 종이배접기대회, 모형보트경주대회, 민족놀이 한마당, 기념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송파문화원 = (02)414-0354
또 공주문화원은 무령왕 즉위 1500주

년을 기념하는 제47회 백제문화제를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동안 주관한다. 공주백제문화선양위원회와 공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문화제는 11일 공산성 서문 교대의식과 축제놀이, 공산성 점등식에 이어 12일 무령왕 즉위식, 역사대행렬, 13일 불전 축제의 밤, 14일 백제혼불 진혼의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47번째인 백제문화제는 찬란했던 옛 선현들의 얼과 슬기를 드높여 오늘에 사는 백제인의 긍지를 높이고 격조높은 백제문화를 계승·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문화원 = (041)852-9005



[대전광역시지회]

대전사랑 문화유적지답사 및 문화강좌 행사를 마치고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사람·삶·어울림’이란 주제가 새삼 의미있게 와닿는다.

우리의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애호사상을 함양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유적지 답사와 문화강좌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다.

답사 첫날인 7월 23일은 대덕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답사 및 강좌가 열렸다. 답사지 한곳 한곳을 들를 때마다 대전대 한상수 교수님이 구수한 옛날 이야기처럼 설명을 해 주어 우리 대전의 문화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싶다.

답사 두번째 날인 7월 30일은 동구지역과 유성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답사를 할 수 있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날씨가 예사롭지 않더니 기어이 답사 중간 중간 소나기가 내렸다. 하지만 이 소나기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님 기억에 더 오래도록 남는 답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답사 마지막날이었던 8월 6일, 서구와 중구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던 이날은 유난히도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겠다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해 보였다. 아마도 이날 강좌를 맡아주신 대전시 문화예술과 류용한 학예연구사님의 쉽고도 자세한 설명이 어린 학생들에게



안옹미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 간사

문화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

또한 답사 일정동안 대전시에서 양성중인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생들이 함께 답사를 다니면서 문화재에 대해 이해가 안가거나 어려웠던

것을 질문하면 옆에서 자세하고도 쉽게 설명을 해주어 문화재가 더욱 친근하게 답사자들에 와 닿았을 것이다.

차내 이동시간을 이용해 퀴즈풀이를 했는데 상품이 있다는 말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상품도 받고, 기본 상식도 많이 알게 되었다며 무척 흐뭇해 했다.

이번 참가자에게는 교재용으로 ‘대전 문화유산안내’라는 책을 나누어 주었다. 그 책자는 대전시내에 위치한 유·무형 지정문화재 120점 목록과 중요부분 60점에 대한 사진과 해설을 수록한 것이다. 특히 손에 들어오는 판형으로 제작돼 이용이 편리했다. 행사 후에 1일 소감서를 쓰도록 하고 기념품으로 휴대용 스텐레스 컵을 나누어주니 무척 좋아했다. 그들이 즐겁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 역시 흐뭇했다.

이번 문화유적지순례답사 및 문화강좌를 마치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중정남도

[금산문화원]

2001 금강민속축제

지난 7월 27~29일 사흘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과 어재리 농박골에서 ‘신비로운 물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금강민속축제가 열렸다.

[은양문화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발전 도모

은양문화원은 지난 7월달의 문화사업으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동아리·사물놀이·여름문화학교를 열었다. 어린이들은 학습발표회·재롱잔치를 했다. 그밖에 작은 도서관·문화학교·향토사료관 운영, 제46차 문화가족 문화현장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전라남도

[담양문화원]

제5회 부모와 함께하는 출향인 자녀 교향유적지 순례

담양문화원은 지난 7월 26~28일 고향사랑, 부모사랑, 나라사랑이라는 취지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 문화유적지를 답사·체험케 했다. 이 행사는 매년 많은 출향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향과의 유대를 돈독케하고 출향인에게 고향발전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행사가 5회째다.



담양문화원

지역문화 뉴스

【보성문화원 · 의성문화원】

영호남간 '자매결연' 맺어

전남 보성문화원과 경북 의성문화원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보성문화원은 영호남간의 동서화합과 문화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7월 24일 보성문화원 3층 회의실에서 의성문화원과 자매 결연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의성문화원 문화가족 45명과 보성문화원 문화가족 90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

【포항문화원】

2001년 하계충효교실

지난 7월23~25일 3일간 포항문화원 강당에서 관내중학교 2학년생 20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하계충효교실'이 열렸다. 한편 8월 11일에는 '제1회 영일만 서예대전' 시상식이 거행됐다.

【김천문화원】

충효교실 성황리에 마쳐

김천문화원은 지난 7월 25~28일까지 4일간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열어 忠과 孝, 향토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문경문화원】

25일까지 독서문화행사 열려

문경문화원은 지난 8월 문화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충효예절교실(6~10일), 청소년 문화유적 현장학습(11일),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 및 현장체험교육(10~12일), 한문예절교실(17일 종강)을 실시했다. 한편 제3회 독서문화행사는 9월 1~25일까지 공모해 29일에 시상식을 갖을 예정이다. 또 9월 4일 회의실에서는 29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연습이 있다.



경상남도

【의령문화원】

의령군지(宜寧郡誌)편찬자료와 미발굴 향토사료수집 협의

의령문화원은 지난 7월 23일 군민회관 회의실에서 향토사연구위원회와 향토임원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모인 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위원 15명과 전교

및 장의 13명, 그리고 의령군지편찬위원 4명 등은 내년엔 발간하게 될 의령군지(宜寧郡誌)편찬자료의 수집과 함께 미발굴 향토사료수집에 따른 실무를 협의했다. 그 협의 내용은 구의령군지와 충효열록 등 이미 간행된 사료집에 등재되지 않은 유일(遺逸), 남행(南行), 명덕(明德), 유행(儒行), 문원사림(文苑詞林) 편에 수록될 인물 자료 수집에 관한 것이었다. 수집된 향토사료는 군지편찬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심의 과정을 거쳐 현대인물편에 등재될 예정이다.

【김해문화원】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

김해문화원은 지난 7월 25~29일 4박 5일간 한일학생 연수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요즘 국가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새로운 역사교과서 불채택 요망서를 히젠쥬 국제 교류 협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돌아왔다. 한편 지난 8월 23일에는 여름방학특강으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고, 25일에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우리 가락한 마당 잔치를 열었다.



김천문화원

의령문화원

[사천문화원]

제31회 '경남 민속예술축제' 서 우수상 차지



지난 7월 7~8일 이틀간 창원체육관에서 열렸던 제3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제에서 사천시의 '마도 갈방아어요'가 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영예의 수상으로 사천시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상금 1백만원을 받았고 2002년 개최되는 전국민속예술제에 경남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획득했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래 민속예술을 발굴·보존하고 한마당 축제를 통한 도민화합과 향토뿌리를 찾기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제는 예년에 비해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고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점점 퇴색해져가는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7월 20일에는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전통문화의 전승·보호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관광지 전통민속공연'을 개최했다.



사천시의 '마도 갈방아어요' 공연 모습.



도민과 함께하는 관광지 민속공연 현장.

[통영문화원]

한국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통영문화원은 지난 7월 20일 시민문화회

관 대강당에서 제3기 한국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견학하면서 유적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졌고 향토애와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통영문화원



[진해문화원]

2001년 청소년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진해문화원은 지난 7월 23~24일, 26~27일 여름방학을 맞은 진해 관내 초·중학교 23개교 학생 135명과 소년·소녀 가장 및 아동위원 60여명을 대상으로 4일간 향토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故이승만대통령별장, 이충무공동상,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주자영당, 웅천현읍성, 남산왜성, 안골포굴강, 용강 망산도 유주암, 유주비각 등을

진해문화원



[마산문화원]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로 박수갈채

일본 아마구치현 미네시의 세계문화에
술행사에 초청을 받은 마산문화원 예술단
은 지난 8월 10일 일본 아마구치현 기라
라 박람회 및 미네시 회관에서 한국 전통
무용과 강연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고 12
일 귀국했다. 특히 미네시 시민회관에서
있는 양국간의 의견발표에서 한국측의
허종성원장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에 대해 반드시 시정이 있어야 양국간의
친선문화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일본 현지말로 직접 발표해 300여명의
일본 관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일본

측은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
택은 극소수에 불
과한데 한국측이
너무 과민해서 모
처럼 한·일간 문
화교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하면서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올바
른 역사인식을 심
어주는데 다같이
노력하자”는데 의

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미
네시의 시장, 시의회의장·부의장, 교육
장을 비롯해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
석했다.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허종성 마산문화원장.

[예산문화원]

15일까지 '추사선생 전국 휘호대회' 공모

추사 김정희선생 기념사업회와 예산
문화원은 오는 15일까지 제12회 추사
선생 추모전국휘호대회에 출품할 작품
을 공모한다. 다음은 공모요강

△ 예선

- 작품내용: 자유
- 작품규격: 화선지반절(130cm×34cm 정도)
- 출품수: 작품은 1인 1점과 출품원서(소장양식 또는 복사, 필사양식 제출)
- 출품자격: 만19세(2001년 10월 14일 현재) 이상의 남녀
- 출품료: 2만원(온라인 입금, 우편소액 한도 가함)
- 우체국 310516-0126998 예산문화원장
제일은행 128-10-141551 추사기념사업회
- 작품제출마감: 2001년 9월 15일(토) 12시까지 제출(당일우체국 소인 유효)
- 예선발표: 9월 30일까지 예선에서 선정

- 된 작가에게는 본선 참가통지서를 우송함.
- ※ 제12회 입상자(특선이상)에 한하여 예선접수 마감일 이전에 출품원서를 제출하면 예선없이 본선 참가자격을 부여함(작품 및 출품료 2만원) 없음
- ※ 출품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본선
- 개최일시: 2001년 10월 14일(일)
- 개최장소: 추사고택 특설과장(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 일기불선시: 예산군학생체육관(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중학교내)
- 작품: 화선지 반절(130×34)을 현장에서 주최측이 2매를 제공하면 1매만 제출함.
- 명제: 당일 발표함.
- 휴대품: 필, 묵, 연, 연적, 서진, 받침천, 연습용화선지
- 심사위원: 당일 발표함.
-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당일 발표 시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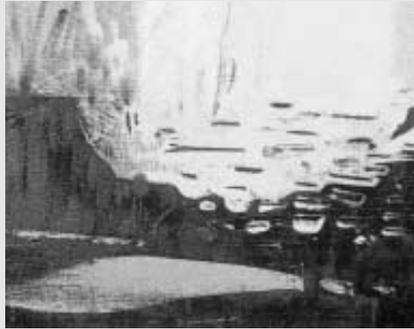
- 심사방법: 공개채점제.
- 본선참가비: 3만원(추후 본선 참가 통지서에 지정하는 날짜까지 온라인 입금) 우체국 310516-0126998 예산문화원장
- 본선참가자 제출 및 제시서류: 본선참가통지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찰할 수 있음.
- △ 시상
- 장원(추사상) 1명 : 상장 및 부상 3백만원
- 차상 3명 : 상장 및 부상 각 1백만원
- 차하 6명 : 상장 및 부상 각 50만원
- 특선 약간명 : 상장
- 입선 약간명 : 상장
- △ 문의처
- 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
전화 (02)747-6874, 전송 (02)747-0083.
- 예산문화원
전화 (041)335-2441, 전송 (041)334-4330.
당선작은 오늘 11월 21~23일 예산군 문화회관과, 27~30일 서울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전시된다.

문 화 계 동 정

갤러리

2일까지 양화정 개인전 열어

‘심상의 눈, 영혼의 창’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양화정씨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현대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自然-머무는곳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자전거 대행진 출발식 개최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와 자전거 사랑전국연합회는 월드컵주최 D-300일을 앞두고 지난 8월 3일 금요일 10시부터 30분 동안 ‘전국자전거 대행진 출발식’을 개최했다.

부음

민속주 인간문화재 박승규용

인간문화재 박승규용이 지난 8월 19일 0시30분 국립암센터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5세. 박용은 민속주 개발에 평생을 보냈으며 면천 두견주 제조의 기술을 인정받아 1986년 최초로 민속주 제조 가능 인간문화재로 지정됐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꽃. 꽃-가베라



自然-산나리

인사

【영월문화원】

유성목 문화원장 선출

영월문화원은 최근 유성목문화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유성목 문화원장은 지난 6월 5일 임시총회를 통해 선임됐다. 다음은 임원진 명단. △부원장=이상국, △이사진=이기원·엄흥용·김종익·조장환·유재동·박용근·박연호·엄재현·윤달중·이태형·서광석, △감사진=전호범·이종문씨.

【광주서구문화원】

오종근 문화원장 선출

광주서구문화원은 최근 김종원장 후임에 오종근씨를 문화원장으로 선출하고 사무국장에는 함평석씨를 임명했다.

한편 지난 8월 9~10일과 14일에는 서구 문화센터와 광주여고 시청각실에서 지역 현장 문화시민 교육을 실시했다. 8월 24일에는 지역주민과 문화계 인사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구문화투어’를 실시해 지역문화 사랑과 문화원 하반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남구문화원】

이종일 문화원장 선출

광주남구문화원은 최근 박태용 원장 후임에 이종일씨를 문화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무국장에는 김갑종씨, 간사에는 박하나씨가 각각 임명됐고 사무실도 이전했다.

△주소= 남구 월산동 1015-1 부흥빌딩 2층(우편번호 503-235)
△전화= (062) 361-7256.

【사천문화원】

사천문화원의 오필근원장이 지난 7월 10일자로 재선됐다.

〈오필근원장〉



〈이종일원장〉



〈김갑종사무국장〉



〈박하나간사〉

메밀꽃 필 무렵의 '봉평장'

평창의 오일장

오일장은 단지 물건을 바꾸는 곳이 아니다. 어찌보면 곳곳한 정과 사무친 한이 오가는 곳이다. '평창

의 오일장'은 예로부터 큰 명성을 누려온 평창의 5일장을 혼한 주말 여행 정보 형태가 아닌 문화·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가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봉평장을 비롯 평창장·미탄장·대화장·진부장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평창의 5일장에 관한 전문가 소리를 들을 법하다. 대형쇼핑몰과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오일장을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 진용선씨(정선아리랑학교장)가 애정을 갖고 현지 상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했다.(평창문화원刊)



포 평장은 옛날부터 2일, 7일 장이었다. 《東國文獻備考》를 보면 1906년까지 강릉에 속해 있었던 지금의 평창평에는 봉평장(2·7일), 진부장(3·8일), 대화장(4·9일)이 연이어 열렸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세 지역을 이동하는 상인들은 지역적인 정서면에서도 본래 평창군에 속해 있던 지역의 장인 평창장, 미탄장, 노일장(지금은 정선군 신동읍)의 상인들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봉평장의 시끌벅적한 옛 모습은 널리 알려져 있는 가산 이효석(李孝石)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잘 드러나 있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의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삭빠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 장수도 땀장수도 옛장수도 생강 장사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에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육, 칠십 리 발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뒤 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양갈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 놓고 계집의 고향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메밀꽃 필 무렵 中)



지금의 봉평장은 소설에서처럼 '땀장'이나 '옛장수', '나무 장사', '생강 장사'와 같은 토속적인 모습은 볼 수 없다. 주정꾼의 욕지거리와 계집의 양갈진 목소리도 들을 수 없으나 여전히 봉평장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

봉평장은 본래 시내를 관통하는 대로변에서 열렸다. 그러나 지금부터 21년 전에 도로가 포장되면서 길이 넓어지고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에 문제



가 생기자 큰길 안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예전의 장은 지금의 창마을이라고 하는 창동 1리, 2리, 4리 지역이다.

옛날부터 봉평장은 대화장에 이어 대장(大場)으로 소문이 났다.

"대화장에서 못 벌면 봉평장에서도 못 번다"고 할 만큼 평창의 이동 상인은 물론 강릉, 횡성, 영월 등지에서 상



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봉평면 일대 골짜기마다 살던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왔고, 용평과 장평에서도 올 정도였다.

옛날에는 국도 변의 먼지 나는 신작로길 옆으로 장이 펼쳐졌고 사람들이 봄벼 밭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한다. 이 효석의 눈으로 본 장터의 모습은 분명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옛 장터의 모습도 노인들의 아련한 기억 속이나 남아 있을 뿐이다.

옛날 봉평장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왜정 때 여 흥정리 한 마을이 350호나 된 걸요. 그때 흥천의 내면서도 여 봉평엔 왔어요. 황기를 이리 짚어지고, 박죽을 깎아가주고, 거 왜 계방산에서 나느 이리 굵은 남기를 가지고 후베 파서 깎아다가 팔았죠. 그 땐 우시장도 여 있었어요. 장터 옆으로 나가면 지금 한의원 자리 뒤에 거서 열렸지요. 없어진 지는 20년이 되었을 거요. 우시장이 있을 때만 해도 둔내에서 상인들이 들어왔지요. 소를 사러. 옛날에, 왜정 때 비하면 궁색하지요. 20년 전만해도 여 봉평국민학교가 천이백 명이 됐는데, 지금은 5백명 겨우 돼나요. 이제 창동 사람하고 무이리 흥정

리덕 1, 2리 사람만 봉평장을 봐요, 먼 사람엔 전수 대화장이나 원수장을 봐요. 지금은 차가 있어서 다들 차를 썩썩타고 하니 장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옛날 여 봉평장 파장 땐 갈지자 걸음 하는 사람이 지천이었어요. (이광섭, 남, 82세, 봉평면 창동리)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평창한의원 뒤쪽으로 우시장이 있어서 횡성 둔내에서까지 소를 사러 들어오곤 했다. 우시장까지 번성했던 봉평장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고 42번 국도가 포장되면서부터다.

도로가 좋아지면서 인근 대화나 평

장터의 현황

봉평장은 면 소재지 입구에서 횡성 둔내로 연결되는 6번 국도 왼쪽으로 난 길과 국도에서 이효석 생가 쪽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열린다.

장날이면 오전 7시부터 곳곳에서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장이 크면 새벽녘부터 나와 분주하지만, 봉평장은 8시가 돼야 개시를 하고 저녁 6시면 파장을 할 정도로 한산하다. 봉평장의

창, 횡성, 원주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주민들이 정기 시장보다는 강릉이나 원주에 가 물건을 구매해 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 외에 농촌 인구의 감소도 시장 기능의 축소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이효석 선양 사업이 시작되어 소설 속의 옛터가 복원되면서 봉평장이 널리 알려지면서 토속적인 장터의 모습을 보기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 장이 서는 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다. 더욱이 봉평에 보광피닉스파크가 들어서게 되자 장터 상인들은 봉평장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상인들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주를 이룬다.

장이 크지 않고 장사가 신통치 않다 보니 객지의 이동상인들은 일찌감치 큰장을 찾아 떠나버린 지 오래다.

교통의 편리함과 높아진 구매력으로 먼 단위 시장이 쇠퇴하기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봉평장은 그 역사성에 비해 한산해 아쉬움을 준다.

문답식 거창역사

거창문화원



단조로운 역사서술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거창의 △자연과 환경 △역사 △거창을 지나간 명현들 △향토인물 △향토 유적·유물 △향토의 교육문화 △향토의 설화와 민요 △문화유적과 관광명승지 등을 문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고장의 뿌리를 찾아서

사상문화원



18세기 중엽의 부산지역 지도와 함께 △사상구의 변천사 △사상의 문화유적 △동별소개 △사상의 문화등을 다루고 있다. 손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판형에 사진과 글을 읽기쉽게 정리해 놓아 관

광가이드북 성격을 띤다. 다만 문화유적지에 대한 약도가 아쉽다.

昌寧土着姓氏考

창녕문화원



창녕 성(成)씨·창녕 신(辛)씨, 하산(창녕) 장(張)씨, 창녕 조(曹)씨, 회산 감(甘)씨를 비롯 진주 강(姜)씨, 곡부 공(孔)씨, 안동 권(權)씨, 광산 김(金)씨, 광주 노(盧)씨 등 창녕 토착 성씨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창녕향토사 제5집

여주사료

여주문화원



조선왕조실록중 연산군부터 선조때까지의 여주에 관한 사료를 모았다. 여주 사료 2집.

문경새재박물관조사연구총서 3~5집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이 조사연구 내용을 담아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총서 3~5집 등 총 3권이 쏟아져 나왔다. 총서 3집 '문경모산굴 기세배'와 4집 '문경 아차마을고인돌', 5집 '문경의 도요지 1' 등이 그것. 전대의 문경새재 관리 사무소장·안태현 문경새재박물관 학예연구사·한양명 안동대 교수 등이 조사·집필했다.

川城 漢詩集

봉화문화원



지난해 제19회 청량문화제 행사로 처음 열린 한시백일장 출품작들을 한데 모았다.

清道文化

청도문화원



각 읍·면의 서원·재질·정자들을 총 망라해 올컬러판으로 만들었다.

鄉儒集과 鄉土史料

거창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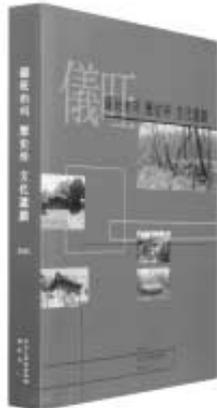


'선현들이 남긴 삶의 철학'에 이어 나온 '향유집과 향토사료' 선현들의 업적과 향토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책이다. 평생동안 문집의 발굴과 수집에 전념해온 향토사학자 오환숙씨(73)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했다. 총2부로 구성된 이책은 제1부 '향토사료편'에서 고은집등 38편의 문집을, 제2부 '향유집편'에서는 '사씨연

방록' 등 78편의 문집을 소개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1999년에 거창문화원에서 발간한 '先賢들이 남긴 삶의 哲學'은 대상 범위를 축소해 다소 집중적으로 개인의 연보, 인품, 저술, 찬양문, 근거문헌 등으로 분류해 소개하다 보니 아직 남아 있는 선비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기기때 이번에는 향토사료(鄉土史料)면에 무게를 두어 각 문집에 나타난 향토 사료는 따로 구분해 소개하고, 서두에 독후기 형식으로 그분의 대체적인 개략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儀旺市の 歷史와 文化遺蹟

세종대박물관·의왕시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조사해 수록했다. 조사대상은 국보·보물·사적 등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를 모두 포함했다. 이책은 △조사경위와 성과 △의왕시의 역사 △의왕시의 고유적 △의왕시의 관방유적 △의왕시의 불교유적 △의왕시의 유교유적 △의왕시의 민속 △의왕시의 지명유래 등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 유적분포도와 일람표를 실었다.

조선말 가짜 어사 출도를 모의했던 사건을 말해 주시오

조선왕조 말기 국내외적으로 정국의 어지럽고 민생이 구렁에 빠졌을 때, 정감록 같은 비기를 빌미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있었다. 1869년(고종 6)봄, 진주의 경상우병사 임상준(任商準)의 보고에 따르면, 고령출신 선달 정만식(鄭晩植·48세), 안동에 살던 주성철(朱成七·44세), 창녕 유학 성하첨(成夏瞻·44세)과, 평양출신으로 거창의 월곡에 옮겨와서 글을 가르치는 양영열(楊永烈·42세)들이 주동이 되어 무등곡의 유학 정재영(鄭在永, 46세)을 시켜 사람을 모아 삼가·단성·하동·진주·덕산·고령·현풍 등지를 내왕하면서 절이나 주막 시장같은 데서 모였다 헤어졌다 하며 장차 암행어사 출도를 가장하여 남해나 통영을 털고, 여세를 몰아 진주를 덮치자는 모의를 하다가 밀고와 면고로 탄로되어 그 일당을 잡아 닥쳐서 문초하는 옥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걸린 사람이 경상도 여러 고을에서 50여 명이고, 그 가운데 10여 명이 거창 사람이며, 사건의 발단은 전년도 8월부터 거창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정만식은 귀인의 기상이 있고, 손금이 기이하며 정감록의 정도령이나 후한의 유비로 자처하고, 주성철은 천하 영웅의 자질이 있으니 장비에 비기고, 성하첨은 관우에, 양영열은 제갈량에 견주었다고 했으니 우스운 일이며, 한꺼번에 10여 명의 거창 사람이 진주 병영에서 추달을 받았으니 당시의 이곳 인심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거창문화원刊 '문답식 역사' 중에서)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1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중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0-4894)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대덕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032-761-2778)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052-272-3438)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8-8041)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 제천문화원(043-646-3646)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351-3255)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 ~ 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합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관광 정보 '수두룩' ... 동영상 · 영문서비스도

전 명 찬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이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30여곳. 그 중에서 속초문화원(http://www.sokcho-culture.com)은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진 곳 중 하나다.

홈페이지의 메뉴구성은 문화원 소개, 향토문화, 향토자료, 향토사료관, 테마기획, 문화관광, 관련정보, 알림방, 질문답변, 방명록, 검색 등.

비교적 지역문화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이미지가 풍부해 보기에 좋다. 관광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 분야의 정보가 많은 것도 특징. 또한 문화원에서 발행된 민속관련 도서들과 정기간행물의 전문을 HTML로 수록, 문화원발행도

서의 유통한계를 극복하기도.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영문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것도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의 특징. 문화재·민속 등 지역문화정보, 관광정보 등 기존 한글서비스 중에서 주요 내용(A4 60매 정도)을 소개하고 있다. 향후 일어와 중국어로도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가령 <향토문화>라는 메뉴에서 민속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설화, 방언 등이 민속이라는 유형과 대등한 메뉴로 소개되고 있어 어색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보검색이 다소 불편한 구조이다.

속초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속초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지원해 줘 전산입력을 했고, 안내 설악지역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했다”면서 “향후 서비스 언어를 확대해 관광속초의 문화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인터페이스들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년 운영비는 100만원 정도 **문**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앞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원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